

제14대 송석구총장 취임

지난달 25일 정각원서 취임식 ... 송총장 "학교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학내 제주체들의 반발도 정리될 듯

지난해 10월 22일 법인의 총장 선임 결정 이후, 송석구 총장이 지난 2월 25일 정각원에서 취임 고별식을 갖고 14대 총장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오석원 이사장, 황명수 총동창회장, 황수영 전총장을 비롯한 교수, 직원, 학생 등 1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고불문 봉독 △이사장 법어 △총장 헌화 △총장 취임사 △황명수 총동창회장 축사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

된 이날 행사에서 송석구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역대 유일한 모교 출신으로 총장에 재선임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올 9.10월경 착공예정인 불교종합병원 및 제3캠퍼스건립과 학사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하여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오석원 이사장은 송총장을 재선임 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 4년의 재임기간 중 송총장이 이룩한 대내외적인 성과를 높이

았으며, 이후에도 단절없는 동국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명수 총동창회장 또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축하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캠 총학생회 한 관계자는 "총학에서 제안한 대학운영위 등에 관해 좀 더 토론 모습으로 대화에 응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송총장이 학내 제주체들에 대해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총장 선임결정과정에서 있었던 교수회(회장=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를 비롯한 학내 제주체

들의 반발과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의 교수회 임원에 대한 징계문제도 학내 제주체들의 화합차원에서 사실상 정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교수회 또한 농성을 중단함과 동시에 회장단이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총장의 취임이후 금명간 진행될 법인과 교수회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이후 발전적인 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대학생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새내기 새 로배움터'가 열렸다. 둘째날 이영미(문화평론가)씨의 대중 문화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한 새내기의 모습이다. 김진아 기자

지면안내

- 『대학운영위』 가능한가 6·7면
- 서울캠 총학에서 제안한 가칭 '대학운영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의결권'의 행사여부를 비롯한 기구 구성에 이르기까지 이에 본보에서는 대학운영위의 상과 태태학의 사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 서울캠 97년 총학생회장 주장주씨 인터뷰 2면
- 김대중 정부 1년, 교육정책 평가 5면
- 학내 문화공간을 찾아서 12면

보리소

늘 향기롭고 깨끗한 연꽃

박 경 준(불교대 불교학부)

불교정신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상징물인 연꽃은 보통 발두마화(紅蓮), 우발라화(靑蓮), 구물두화(赤白의 2종), 분다라화(白蓮)의 네 종류로 구분된다. 또는 여기에 니로발라화(靑蓮)를 더하여 다섯 종류로 나누기도 한다. 그 날 연꽃이라고 할 때는 주로 발두마화, 분다라화를 지칭한다.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 의하면 연꽃은 비슈누 신의 배꼽 가운데서 피어나는데 연꽃 속에 범천이 결가부좌하고 앉아 만물을 창조한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불·보살의 자리가 거의 연꽃으로 되어 있으며, 연꽃이 직접 부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것은 불·보살이 연꽃처럼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항상 맑고 깨끗함을 지켜 가는 것(處染而淨)을 의미한다. 중국의 열계 삼생은 연꽃에 대한 사랑을 '애련설'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내 홀로 연을 사랑하나니, 진흙에서 자라나도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겨도 요연하지 않고, 그 속은 텅 비어 통하고 겉은 끈으며, 냉로도 없고 가뭄도 없으며, 향기는 멀리까지 맑게 퍼지며, 물 가운데 우뚝 조흔히 서있으니, 멀리서 바라 볼 수는 있어도 가까이서 매만질 수는 없다." 선생은 연꽃을 속세에 처신하여도 악에 물들지 않고 향기와 품위를 지켜가는 고매한 군자의 품모에 비유한 것이다. '삼대승론'에서는 법계진여의 '상·락·아·정'(常樂我淨) 4 덕을 연꽃의 '향기·청정함·부드러움·사랑스러움' 등 네 가지 특성에 비유하고, '제계장 보살소문경'에서는 보살이 혼탁한 세상에 머물지만, 조금도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지 않고,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고 밝은 모습을 잃고,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고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등의 열 가지 덕을 연꽃의 속성에 비유하고 있다.

어느 스님은 출가의 근본정신은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참담하게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연꽃은 소리없이 우리에게 말한다. 불교의 참뜻은 죄악으로 물든 현실을 도피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와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그윽한 삶의 향기를 퍼워내는데 있는 것이라고.

제14대 송석구 총장 인터뷰

“학내 구성원의 대동단결로 동국중흥 이루자”



지난 2월 24일,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송석구(철학) 제13대 총장이 지난 25일 제14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22일 법인이사회는 송석구 총장 재임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학내 제주체들은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러한 학내 상황에서 재취임한 송석구 총장을 만나 학내 제주체들과의 화합을 위한 계획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았다.

-재임된 소감은.
=개인적으로 기쁘다기 보다는 마치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돌을 굴러 산정상에 올라가야 하는 심정이다. '동국발전'이라는 원력을 성실하게 성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법인이사회의 재임결정 이후 학내주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학내주체들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나 또한 지난 90년, 94년 교수회선거를 통해 총장으로 선임됐듯 교수회선거의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총장선출 권한은 법적으로 법인에 있다. 법인의 이번 결정은 지난

4년 임기동안 '동국중흥'이라는 큰 목표 아래 추진해온 교육개혁과 불교종합병원·제3캠퍼스 건설 등을 완성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법인의 결정으로 벌어진 학내혼란은 내 부족한 소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모두 화합해서 '동국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지난 4년의 업적 평가와 앞으로의 목표를 밝힌다면.
=외적·양적으로는 교지 확충을 통한 교세 강화를 학교발전의 기본요소로 삼아 제3캠퍼스 및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약 8백여 정도 규모의 건립 공사비용 중 현재 3백 78억을 조성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기부금과 병원 수익금으로 건립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과제이다. 최소 6~7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무리 없이 추진할 것이다.

내적·질적으로는 교육개혁을 실시했다. 전국 대학 최초로 시행한 우리 대학의 교육개혁은 교육부로부터 3개년 연속 교육개혁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의 학생은 재력이 있으나 학습량이 적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생들의 학습량을

늘릴 수 있는 연계전공, 복합전공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학부제를 확대 실시해 학생들의 선택 기회를 넓혀줄 것이다.

-본교는 지난해 LG의 경영진단을 받고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본교의 행정구조조정 진행 정도는.
=LG의 경영진단을 토대로 본교 연구팀이 구조조정안을 확정했다. 3월 중 이사회에서 구조조정안이 통과되면 3개월 동안 전체 행정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7월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봉제도 내년 7월부터 실시한다. 서비스행정, 능률의 극대화가 구조조정의 최대 목표이다.

-현재 학생회는 교수, 학생 등 학내 3주체가 학교발전에 대해 상설적으로 논의, 의결할 수 있는 기구인 대학운영위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대학운영위는 의결권을 갖기보다는 옴부즈맨 형식으로 운영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간 일년에 한번씩 해오던 '총장과의 대화'를 보다 많이 실시해 학생들과의 대화기회를 늘릴 것이다.

-경주캠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이 있다면.
=금년에 본관 설계를 완료하고 자연과학관, 영상관, 미술학부 건물 등을 증축할 것이다. 본관만 건립되면 경주캠퍼스도 어느 정도 자치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무엇보다 동국은 하나이기에 서울캠퍼스가 발전하면 경주캠 퍼스의 발전도 더불어 이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내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원효스님이 "여언이취개불허(如言而取皆不許)하고, 득의이언부불허(得意而言無不許)"라 하셨다. 말 그대로 들으면 용서할 바 없으나 뜻으로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말처럼 앞으로 동국인들이 말로 살지 않고, 뜻으로 살아갈 바란다.

또한, 교수회를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교수회가 건전하게 학교 발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와 더불어 학내 구성원들과 화합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학내구성원이 대동단결 해서 동국중흥을 이뤄야 할 때이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본사사령

◇임기만료

- ▲편집장=최정식(문과대 독문 4)
- ▲편집부장=이해경(상경대 관광경영 4)
- ▲취재부장=김용환(사과대 신방 4)
- ▲사회부장 겸 사진부장=오인택(사과대 신방 4)
- ▲문화부장=최진(생자대 생명자원경제 4)

◇신임부장

- ▲편집장 겸 문화부장=김미경(문과대 문예창작전공 3)
 - ▲편집부장 겸 문화부장=황성규(법정대 국제관계학 전공 3)
 - ▲대학1부장=유철주(문과대 사회전공 3)
 - ▲대학2부장=장희정(상경대 경제학전공 3)
 - ▲사회부장 겸 사진부장=남대철(정산대 정보통신공학전공 3)
 - ▲기획부장 겸 광고부장=박영실(사과대 사회학과 3)
 - ▲학술부장 겸 여론부장=박양우(법정대 국제관계학 전공 3)
- 이상 3월1일자

동대신문 기획광고



‘확’ 달라졌습니다!

- 동대신문 제호가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 지면이 늘었습니다. (12면, 8면 교차발행)
- 첫면과 끝면은 칼라로 제작됩니다.
- 인터넷 기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자 E-mail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등록금, “교육환경 개선·교육재정 확보 급선무”

학교측, “올해도 동결”... 총학, “납부연기운동 펼칠터”

이번주 3차협의 구체적 방향 나올 듯

99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이미 발송돼 지난 달 27일까지 등록금 납부기간을 한 가운데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가 등록금 납부연기운동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총학생회는 △국가교육재정확보, 재단전입금 확충을 통한 등록금 삭감 △투명한 예산집행에 의한 교육환경개선 △등록금 분할납부 실시 △장학금 제도 확충 등을 요구하며 ‘한학기의 3분의 1기한 내에 등록금을 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교육법에 따라 이번 학기의 3분의 1이 되는 다음 달 7일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납부연기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 학원주주화 투쟁위원회의 이선진(수교4) 위원장은 “현재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발부한 등록금 고지서는 의미가 없다”며 “97학년도에 5% 인상,

98·99학년도에는 등록금을 동결하여 학교측이 경제사정을 고려하는 듯 하나 물가인상과 경제위기를 감안 할 때 삭감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총학생회의 의견이며, 따라서 등록금은 삭감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교육재정의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연대와 고대 등에서는 등록금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총학생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삭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달 12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친 총학생회와 학교당국의 등록금 협상은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주 내에 있을 3차 협상에서 등록금 협의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지난 2월23일 학생처장실에서 학생대표와 학교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등록금 협의가 진행됐다.

1999학년도 1학기

“도구 0기”

신규교수 프로 필



▲박문기(불교대 불교학부 전임강사)
· 분교 선학과 졸
· 분교 중국선학 석사학위 취득
· 분교 철학박사학위 취득
· 전 분교 강사
· 중국 선학 전공



▲박찬웅(사과대 사회과학부 전임강사)
· 연세대 사회학과 졸
· 시카고대 사회학 석사학위 취득
· 시카고대 사회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대우 전임강사
· 사회학 전공



▲김관호(사과대 사회과학부 전임강사)
· 서울대 경제학과 졸
· 콜롬비아대 경제학 석사학위 취득
· 콜롬비아대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제무역론 전공



▲이재훈(정보산업대 컴퓨터공학부 전임강사)
· 한양대 전자공학과 졸
· 한국과학기술원 컴퓨터네트워크 석사학위 취득
·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학위 취득
· 전 (주)삼성전자 선임연구원
· 컴퓨터네트워크학 전공



▲류성(정보산업대 정보통신공학부 전임강사)
· 플로리다 공대 컴퓨터공학과 졸
· Polytechnic 대 전기공학 석사학위 취득
· Polytechnic 대 공학박사학위 취득
· 전 LG 정보통신연구소 선임연구원
· 전기공학 전공



▲이은희(인문대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 부산대 사회사업학과 졸
· 부산대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취득
· 부산대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울산대 부설 보육사 교육원 전임교수
· 행정학 전공



▲하성(인문대 사회체육학과 전임강사)
· 분교 체육교육학과 졸
· 분교 교과교육학 석사학위 취득
· 경희대 의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분교 강사
· 체육학 전공



▲유석동(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부산대 의학과 졸
· 부산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부산대 의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부산대 병원 전임의
· 의학 전공



▲김국남(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영남대 의학과 졸
· 영남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전 안동성소병원 신경과장
· 의학 전공

입학식, 2일 만해광장에서

경주캠은 3일 문무관에서

99학년도 입학식이 내일(2일) 오전 11시 만해광장에서 진행된다. 오복원이사장, 송석구 총장을 비롯하여 총동창회장, 재단이사, 교수,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질 이번 입학식은 △삼귀의례 △국민의례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인 수석입학식 서용겸·박지

은(연극영상)양, 경주캠-김성수(한의)군의 신입생 선서 △총장·이사장 치사 △광명수 총동창회장 축사 △장학증서 수여 △교무위원 소개 △교가제창 △사홍서원 △폐식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경주캠의 9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은 오는 3일 오전 11시 문무관에서 개최된다.

참사람봉사단원 모집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장학과에서

참사람봉사단(단장=송석구·철학)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봄학기 사회봉사 단원을 모집한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책임감과 성실하게 사회봉사에 참여할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소정의 양식을 갖춘 지원서를 장학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모집과 관련해 참사람봉사단의 한 관계자는 “봉사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학부생 소속편제 통일

2학년 학과생 ‘학부’ 3학년 학과생 ‘전공’으로

96학년도부터 실시된 학부제로 인해 학과, 계열, 전공이 혼재했던 재학생들의 소속편제가 통일화 된다. 95학년도 이전에 학과로 입학한 학생들은 2학년의 경우 학과를 포괄하고 있는 ‘학부’의 명칭을 쓰며, 3학년의 경우 ‘학과’ 대신 ‘전공’이라 한다. 예를 들어 95학년도 이전

에 인도철학과로 입학한 현 2학년 학생은 불교학부에 소속되며 3학년 전공결정시에는 자동적으로 인도철학 전공이 된다.

한편, 계열로 입학한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서 학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현 학과 모집단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97년 총학생회장 구장주씨 인터뷰

“양심수 없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구장주씨

3·1절 특사로 지난 2월 25일 순천교도소에서 석방된 97년 총학생회장 구장주(경영(야) 4)씨를 만나 출소 소감 등을 들어보았다.

- 출소 소감은.
=1년 8개월여 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인지 많은 것이 낯설고, 부담으로 느껴진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줬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다. 그리고 고맙다. 부모님, 선후배들, 그리고 동지들에 대한 믿음으로 이후 생활을 준비해 나가겠다.

- 건강이 많이 안좋아 보이는데.
=작년 8·15를 전후한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서 폐지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25일간의 단식투쟁 후유증으로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

지고 있다.
- 연행당시의 과정은.
=97년 7월 12일 밤 9시가 조금 지난 시간, 당시 여름 농활을 마치고 학생들과 함께 총학생회실에서 쉬고 있던 중 원진욱 부총학생회장과 함께 경찰 50여명에 의해 연행, 구속되었다.
그해 3월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 준법서약서를 쓰고 석방되었는데.
=작년 8·15사면 때도 준법서약서 작성 제안이 있었으나 그때는 거부 했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제안이 와서 나의 운동과 이후 활동을 위한 고민 끝에 제출했다. 그러나 준법서약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나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도와왔던 많은 사람들을 찾아 보고 인사를 전하고 싶다. 또한 다시 학교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운동과 진로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하겠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졸업 ... 지난 25일 오전 10시30분 본관 강당에서 교수, 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9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박사 5명, 석사 2백37명 등 총 2천6백12명이 학위를 받았다.

중앙도서관 단축 운영

오는 10일까지 부분적으로

중앙도서관(관장=김병식·화학공학)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층 멀티미디어실, 2층 과제도서실, 불교학자료실, 3층 참고도서실, 정기간행물실을 단축 운영한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관하며 토요일은 휴관한다.

교환학생 파견

일본 용곡대 등 6개대학

지난해 11월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된 교환학생들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본교 자매대학으로 파견된다.

교환학생은 매학기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취득과목과 성적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일본 용곡대에 3명, 고마자와대 2명, 불교대 2명, 삿포로학원대 2명과 중국 청화대와 상해사범대에 각각 3명씩 파견된다.

학번체계 변경

Y2k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번체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1. 신학번체계 : 8자리
가. 첫 자리 : 세기구분 나. 2~3자리 : 연도 2자리
다. 4자리 : 구분코드 라. 5~8자리 : 연번호 4자리
2. 대상 : 재학생(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제적생, 시간제학생
3. 적용시기 : 99. 3. 1일부터
4. 당부사항 : 학생증을 재발급 받을 것 (재발급신청장소 : 소속대학 교학과, 수수료 없음)

교무처장

대학원 수강신청 정정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강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1. 정정기간 : 99. 3. 9(화) ~ 11(목)까지 3일간
2. 정정장소 : 대학원 컴퓨터실·실습실 EK·실습실 JB·실습실 GI(혜화관 1층)(경주는 수강신청처와 동일)
3. 정정시간 및 방법 : 수강신청처와 동일

대학원장

그 이름으로



▲황용기(문과대 인문학부 전임강사)
· 서울대 철학과 졸
· 서울대 서양철학 석사학위 취득
· 베를린 자유대 철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이화여대, 숭실대 시간강사
· 사회철학·역사 철학 전공



▲장시기(문과대 영어영문학과 전임강사)
· 본교 영어영문학과 졸
· 본교 영문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문학박사학위 취득
· 전 본교 시간강사
· 영문학 전공



▲김봉현(경상대 경제통상학부 전임강사)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졸
· 미시간대 광고학 석사학위 취득
· 알라바마대 광고학 박사학위 취득
· 전 금강기획 마케팅 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 광고학 전공



▲홍유표(공과대 전기전자공학부 전임강사)
· 연세대 전기공학과 졸
· S. California 대 전기공학 석사학위 취득
· S. California 대 공학 박사학위 취득
· 전 Senior R&D Engineer
· 컴퓨터 공학 전공



▲김정현(예술대 연극영상학부 전임강사)
· Duquesne대 Computer Science 졸
· School of Visual Arts Computer Arts 석사학위 취득
· 전 MBC미술센터 미술감독
· 예술학 전공



▲한상일(불교문화대 국악과 전임강사)
· 추계예술대 국악과 졸
· 중앙대 교육학 석사학위 취득
· 전 국립관현악단 지휘자
· 음악교육 전공



▲장인현(자연대 정보통신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졸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 석사학위 취득
·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학위 취득
· 전 데이콤 종합연구소 책임연구원
· 전산학 전공



▲문진영(한의대 한의학과 전임강사)
· 본교 한의학과 졸
· 본교 한의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한의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본교 강사
· 한의학 전공



▲김태훈(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의학 졸
· 서울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충북대 의학 박사과정 재학중
· 전 본교 포항병원 임시직 전문의
· 의학 전공(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오창석(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경북대 의학과 졸업
· 경북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전 본교 포항병원 임시직 전문의
· 의학 전공

신입생, 편입생 등록률 각각 98.5%, 95%

입학과(과장=정성호)는 지난 26일까지 99학년도 신입생 입학등록을 중간 집계한 결과 모집인원 2천 1백 80명중 2천1백68명이 등록을 해 98.5%의 등록률(환불자를 감안한 실등록 인원)을 보였다고 밝혔다.

신입생 등록과 관련해 입학과는 "아직까지 환불자가 있어 신입생 등록에 약간의 유동성이 있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편입학과 관련해서는 일반 편입의 경우 4백 27명 합격자 가운데 4백 8명이 등록을 마쳐 95.5%의 등록률을 기록했고, 학사편입 경우 23명의 합격자중 20명이 등록을 마쳐 87%의 등록률을 보였다.

또한 일반 편입과 관련해 입학과는 지난달 27일까지 미등록인원 77명에 대해 재접수를 받았다.

재적생 학번변경

2일부터 적용

학적과(과장=조원생)는 2일부터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기존에 사용해 오던 학번을 신학번으로 변경, 학업이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학번에는 △세기표시를 1자리 표기 △년도 2자리 △구학번에 표시된 학과코드 번호를 없애고 학생 구분코드 1자리 △년 번호 4자리 표기 등이 표기됨에 따라 구 학번에서 전과나 복수전공을 할 경우, 학번을 새롭게 부여받아야 되는 불편을 없앴다.

학번 변경확인 방법은 △소속 학부(과) 전공별 주임교수 연구실 및 소속대학 교학과에서 99년도 1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원상에 부여된 신학번 △학과(과), 전공별 주임 연구실 및 소속대학 교학과에 비취된 열람용 자료 △신규로 발급되는 학생증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근목계장은 "Y2k로 인해 세기 구분이 없다면 모든 학사행정이 엉망이 된다"며 학생들은 "모든 학사업무에 적용되는 신규 학번을 빠른시일내에 확인하여 학업이수 및 행정 일괄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63회 의사국가시험

본교생 88% 합격

제63회 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결과, 본교에선 재학생(졸업예정자) 38명중 35명, 졸업생12명중 9명이 국사에서 합격해 88%의 합격률을 보였다.

대구 사대부고에서 치러진 국시의 합격기준을 살펴보면,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매과목 40%이상 득점해야한다.

한편, 본교는 국시를 치를 학생들에게 7.8월은 금강생활관(관장=김복순 국사학)보현동을, 9월에서 12월까지는 경주 병원 신축동 신관 6층을 합숙훈련장소로 제공해 주었다.

이번 국시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최선을 노력으로 작년엔 비해 이번 국시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총여, 새터참가

'성교육' 강연

총여학생회(회장=전신희·국문 4 이하 총여)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치러지는 각 단대별 새터일정에 이틀간 찬조 출연해 '성 교육'에 관한 강연을 가진다.

총여학생회(회장=전신희·국문 4 이하 총여)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치러지는 각 단대별 새터일정에 이틀간 찬조 출연해 '성 교육'에 관한 강연을 가진다. 1. 2부로 나뉘어 치러지는 새터 강연회에서 1부는 정양심 총여부회장의 진행으로 △퍼포먼스 △살풀이에 대해 2부에서는 전신희 회장의 진행으로 △여성성을 위한 피임법 △성희롱에 관한 비디오텍 등이 있을 예정이다. 새터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졸업시즌에 분제시 되고 있는 여성고용정책에 대해서도 얘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과 설레임 안고 새터로 간 새내기

오는 5일부터 불문대를 비롯 5개 단대 치를 예정

99학년도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행사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7일까지 각 단대별로 개최된다.

한의대·의대는 지난 25일 행사를 마쳤으며 야간강좌는 3월 1일까지, 불문대를 비롯한 5개 단대의 새터는 오는 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각 단대 새터일정은 다음과 같다.

[불문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동안 경주 산내 유스호스텔에서 새터를 치러지는 행사는 △5일=일제식, 과별시간, 노래 배우기 △6일=예배, 과별시간, 초청강연회, 문화공연, 캠프화이어 △7일=성문제 강연, 회향식 등이다. 이번 예비대학의 예상참가 인원은 1백 50여명 정도이며, 참가비는 신입생 4만 8천 원, 재학생 5만원 이다.

[인문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충효동 신라대수원에 새터를 개최한다.

이번 새터의 행사일정은 △5일=과별시간 문화공연(서라벌 문화회관) △6일=과별시간, 강좌, 문화공연 △7일=새터 평가 등이고, 참가비용은 작년과 동일하게 신입생 5만원, 재학생 3만 5천원이다.

[자연대] 자연대는 상경대와 연합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양산 해운 자연농원에서 새터일정을 가질 예정이며, 행사일정은 △5일=문화공연, △6일=성교육, 과별장기자랑 및 동아리 공연, 캠프화이어 △7일=학과 및 학부시간 등으로 자연대와 상경대의 예상 참가인원은 6백 명 정도이다. 재학생의 경우 참가비는 3만 2천원이며, 신입생은 5만원이다. 연합과 관련해 상경대 학생회 한 간부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보다 많은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 새터를 연합해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정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불국사 21세기 연수원 부설 토함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새터일정을 치러지며, △5일=법정대 소개, 특별강연 △6일=과별시간, 불국사 방문, 신입생 장기자랑 및 동아리 공연, 캠프 화이어 △7일=응답표 및 설문조사, 새터 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의 참가비는 신입생 5만원, 재학생 3만 5천원이며, 예상 참가인원은 1백 20명 정도이다.

[상경대] 자연대와 연합해서 떠나는 새터의 일정을 살펴보면 △5일

=자연대와 연합한 신입생 환영공연 △6일=과별시간, 강연회, 상경대 간이 체육대회, 새내기 장기자랑 및 문화공연 △7일=각 학과 평가회 등이다. 참가비는 신입생 5만원, 재학생 3만 2천원이다.

[동연] 동아리연합회(회장=이건상·해물 이하 동연)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7일까지 치러지는 각 단대별 예비대학 행사에 동아리별로 찬조출연 한다.

각 단대별 동아리 찬조출연 일정을 살펴보면 (팔호안은 장소) 불문대=오는 6일 (경주 유스호스텔): 남녘땅 북녘하늘(이하 남늘이),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하 새여사), 뮤토피아, 퀘스트 △인문대=오는 5일(충효동 신라대수원): 새여사, 남늘이, 동국음악회, 퀘스트, 유로스 6일:불휘, 그날이 오면, 무쇠나팔 △자연대=오는 5일(양산 해운 자연농원): 해방뿔치, 탈패, 알샘, 솔메리아, 소리창고 △법정대=오는 6일(불국사 21세기 연수원 부설 토함산 청소년 수련원):불휘, 솔메리아, 유로스 △상경대=오는 5일(양산 해운 자연 농원): 해방뿔치, 탈패, 알샘, 솔메리아, 소리창고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주캠 창업보육센터 13억여원 지원

경주지역 산재된 유·무형 문화재 상품화 시도

지역사회와 협동... 지역중소기업 육성

본교 창업보육센터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김갑주·국사학 이하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1월에 대구 경북중소기업청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지정 신청을 내어 대전 중소기업 본청에 선정, 지원이 확정되었다.

중소기업청 및 경주시청으로부터 향후 5년동안 총 13억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경주시 및 중소기업청과 밀착된 협

력체제하에 본교 창업희망자(교수, 학생 등)를 비롯해 지역내외의 창업자본가, 지역중소기업가들과도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문화 상품을 발굴할 예정이며, 경주인근에 산재된 유·무형문화재가 상품개발 영역에 해당한다.

창업보육과 관련해 지역정책연구소 황운식(회계학)소장은 "창업보육센터는 경주시와 공동연구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동하에 지역중소기

"청소년을 위한 신라문화 체험탐방"

경주 일대 현지 체험역사탐방으로 산 교육 펼쳐

'청소년을 위한 신라문화 체험탐방'이 지난 1월 24일부터 3박 4일간 금강생활관 및 동국 투어러린 주관으로 치러졌다.

본교와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9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의 취지는 △경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신라 및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들을 관람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역사교육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현장체험을 통한 살아있는 체험교육 등이다.

신라문화 체험탐방의 프로그램은 크게 4부분으로 나뉘 △현지체험탐방- 남산의 숨결, 삼국통일의 자취(통일전), 황룡사의 과거와 현재,

삼국유사 역사 현장을 찾아서, 경주의 과거와 현재 △이벤트- 신라토기 제작실습, 각종 공연 및 장기자랑, 해맞이 △부대행사- 일정동안의 박물관관람 우수교육생 선발 △강연- 신라토기, 탐과 사찰, 탐방지 슬라이드 강연, 김갑주 부총장 강연, 신라유적 영상강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탐방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청소년을 위한 산교육을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홍보기간이 짧아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홍보차원에서도 본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도 이번 행사가 큰 기여가 됐다"고 말했다.

취업 관련 홈페이지 개설

http://wwwk.dongguk.ac.kr/~jobbank

취업과(과장=정성호)에서는 취업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오는 5일까지 개설할 예정이다.

곧 개설될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dongguk.ac.kr/~jobbank이며, 주내용은 신바람 취업정보, 노동부 취업정보, 인터넷 취업뱅크, 사이버 인력은행 등 취업알선기관과 연결되는 인터넷 사이트 제공이다.

또한 각 유망 자격증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며, 경주지역내 취업과 관련된 게시판을 오는 5일 이후에 연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본교 재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업과는 오는 4일 9시 40분부터 12시까지 신입생 모의 토의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각 학부(과) 지정된 별도 강의실에서 치러지며, 99학년도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모의토의와 관련해 취업과에서는 "시험결과는 3월말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응시료는 무료"라고 밝혔다.

회전무대

봄비니관

○... "봄비니관=봄비니관(?)" 지난 22일부터 개관한 서울캠 봄비니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로 발 디딜 틈도없이 붐비고 있다는데,

그러나 본격적인(?) 열정이 아니어서 아직도 불편한 점은 산적.

게다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계산 옆으로 학생들의 발이 빠질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 무대자 왈, "봄비니 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다??"

수리?

○... "자유 대신 일을 달라!"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기업이 줄어들어 올해 졸업생 또한 신규 실업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데,

공여자책으로 휴학 또는 군입대를 하거나 심지어 졸업생 미루고 학교를 더 다니는 일명 "대학 5년생"마저 생기고 있으니. 이에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 한 졸업생이 말하길, "오늘부터 나는 ~ 수리."

홍리스

○... 길 잃은 천사. 알고보니 방중 강의실 내부 수리로 복도에 내용은 책상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경주캠 원효관 4층, 복도와 계단에 준비하게(?) 널려져 있다는데, 신입생과 부모들은 더욱이 학교 구경과 합격증서도 받으려면 길 잃은 천사에게 들켰다가 되레 이를 무관하게 일괄만 찌푸리려 하는 역효과만 났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언제부터 대학도 복도에서 공부하는 날이 있었나?"

병목현상

○...아나운서 "동국 낮 정오 교통정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11시 경주캠 졸업식이 있는 동국대학교 행사장 밖에서 식당에 가기위해 집을 나선 차량들로 뺨긋히 차있다고 합니다"

동국대 기자 "예, 여기는 약 1백여대의 차량들이 시동을 꺼뒀다시피 했으며, 서로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10분째 10여미터를 채 빠져나가지 못하는 티코의 현실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에 비상 교통정리원 조사 학교측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나운서 "예 안타깝습니다. 마치 서울 도심속의 병목현상을 보는 것만 같군요..."

동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신입생 적응지도 4일 문무관에서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적응지도)이 오는 4일 오후 1시부터 문무관에서 열린다.

"동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란 기치아래 치러질 이번 행사는 △비디오 상영 △환영인사 △해당부서 주요업무 안내 △총장, 부총장 소개 및 인사 △특강 등으로 진행되며, 이후 2부 공연으로 △교과 및 응원가 배우기 △총재공연 △노래대 공연 △초청공연 등이 이어진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신입생을 위한 모의토의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복학생을 비롯한 약 2천여명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질 토의 시험은 각 단대 및 과별로 나눠 원효관과 진흥관에서 가질 예정이며, 시험당시 주의사항은 △시간할때 연수 △지정된 교실에 입실 △컴퓨터 수성 싸인펜 준비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과 한 관계자는 "이번 신입생 적응지도 시간에는 학번관련 및 학생증 신청접수도 관련돼 있어 모든 신입생들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증축공사 완공

간호대 강의실 생겨

의과대학(학장=김두희·예방의학) 증축공사가 지난 9월 11일부터 5개월간의 공사과정 끝에 지난달 28일 완공됐다.

기존 4층 건물이었던 의학과 전체를 한층 더 높여 총 5백 66평의 공간을 확장한 것이며, 확장된 공간은 간호대의 강의실 및 실험실실로 이용된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 한 관계자는 "의학관의 경우 강의실 공간이 비좁아 간호대가 들어 갈 자리가 없어 원효관까지 가야되는 불편함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동약로



코카콜라

“코카콜라를 먹지 말자고?” 지난 주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열린 새내기 새로배움터, 1층 로비에 마련된 자보에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코카콜라 불매운동에 대한 찬반을 스티커 붙이기를 통해 새내기들에게 묻고 있었다.

“난 찬성이야. 이리다가 우리 나라 음료회사 다 망할지도 모른 다잖아.” “그럼 뭐 마셔야 되는 거야? 난 반대할래. 먹을게 없어.”

세계적으로 초당 7천5백 병 판매의 놀라운 기록을 지니고 세계 음료시장의 석권해 가는 코카콜라 회사, 얼마전 부터는 자본을 앞세워 시장 장악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전국 각 매장에 음료보관용 냉장고와 음료렌 자판기를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 산 속도 예외는 아니어서 새터가 한창인 소백산의 캠음료 자판기 안에도 온통 코카콜라 제품뿐이었다.

코카콜라의 국내시장 장악은 학교안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코카콜라 회사의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학교 안에 있는 대부분의 캠음료 자판기는 새 단장을 했다. 이와 동시에 자판기에서 같이만든 과일과 식혜, 칠성사이다 등 우리음료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경제위기로 음료소비가 줄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음료 업계의 상황은 이같은 코카콜라 회사의 전략에 맞 대응하기 쉽지 않아 위태롭기만 하다. 그래서 그런지 코카콜라 불매운동의 찬반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게 느껴진다.

어느새 흰 종이 위에는 찬성과 반대를 나타내는 색색의 스티커가 새내기들의 갈등을 보여주리라도 하듯 가득히 붙어있다. 즐기는 음료를 먹지 말자고 해서 그런지 새내기들의 의견은 찬반에 뚜렷한 차이 없이 비슷비슷하게 나타난다.

의식과 입 및 사이를 오가는 그들의 갈등이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기특한 의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특사를 앞두고 치러진 99 민중대회

국보법 철폐 · 양심수 전원 석방 거듭 촉구

3·1절 특별 사면후 ... “여전히 많은 양심수가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발언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있다.

3.1절 특별사면을 앞둔 지난달 21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선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생존권 보장,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민중대회’가 치러졌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의장=진관 이하 민중공대위) 주최로 열린 이번 민중대회에는 8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등 30여 재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본 집회에서는 오세철 상임대표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참여 재야 단체 대표

의 주제연설이 있었다. 강희남 조국통일부민족연합의장은 “민족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바람직한 주역이 필요하며, 이는 바로 우리의 청년 학생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지대 부총학생회장인 김덕진(영문 95)군은 “현정부의 사대행각, 반통일정책, 공안탄압, 경제침투회 규탄”을 외치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폐를 요구했다. 이어 민가협 서경순씨는 “양심수를 감옥에 두고 인권선언은 무슨 인권선언이나”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했다.

본 집회를 마친 후 서울역에서부터 명

동, 종로3가, 종로5가를 거쳐 대학로까지 거리행진이 예정됐으나, 미리 배치된 1천5백여명의 전투경찰들에 의해 저지됐다. 이로 인해 2시간여동안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졌으며, 그 과정에서 명지대의 한 학생이 코빠가 부서져 병원에 입원하는 등 학생 15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새날을 여는 실업자연맹 회원 김현수씨가 전투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집경들의 저지로 인해 가두시위가 무산되자 민중공대위 대표들과 한총련소속 일부 학생들은 ‘국민과의 대화’가 진행중인 등촌동 서울방송 공개홀로 갔으며, 여기서 정리집회를 가진 후 해산했다.

현재 민중공대위측은 정부가 권력을 통해 민중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한 점과 부상학생 피해사례를 근거로 검찰에 소송을 낸 상태이다.

이날 집회를 마친 민중공대위 한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 대해 “3·1절 특별사면을 앞둔 시점에서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전면으로 내걸고 국보법 철폐와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한 집회”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25일 세계최장기수인 우용각 씨를 비롯한 비전향 장기수 17명이 출소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양심수가 교도소에 남아 있다”며 민가협 회원 30여명은 이날 탑골공원에서 목요일집회를 치렀다.

〈훈〉 jaehun79@cakra.dongguk.ac.kr



무료급식... 지난해 9월부터 매주 금요일 12시 장충단 공원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초당식품의 후원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26일 이곳을 찾은 3백여명은 이날 메뉴인 순두부로 식사를 해결했다.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민주노총 노사정위 탈퇴

3·4월 총력투쟁 가져갈 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갑용 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열린 제1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4일후인 27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4천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가졌다.

노사정위는 작년 2월 6일 출범한 이후 정부가 이 기구를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치부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실제로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정리해고

제, 근로자파견제와 법제화 되자 노조측의 요구사항인 재벌개혁, 노동시간단축 등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으며, 실업자의 노조가입, 전교조합법화 등도 최근 민주노총의 탈퇴유지집회가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통과된 것이다.

27일 열린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탈퇴한 것은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3월, 4월에 총력투쟁을 펼칠것을 결의했다. 사회부

현장에서 바라본 어업협정

“우리가 잡은 고기 안먹으려나”



부산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강일씨. 뒤로 보이는 현수막이 이의 심정을 말하는 듯하다.

지난 1월 22일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되어 지난달 5일 실무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정에서 오는 2천년까지 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어선의 수와 어획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어민들은 까다로운 조업절차를 밟아야만 일본수역내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어획량이 급감시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수역내에서 어장을 이동해야하는 어민들에게 책당 역대가 넘는 어선에 대해 최고 3천5백만원만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방침을 세워 어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 한강일(44, 선원)씨를 만나보았다.

-한일 어업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나.

= 대통령은 뭐했나? 중국은 경제수역 선포에 반응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바다 다했잖아. 예전에는 박정희가 대한해협 팔아먹더니 이번에도 우리 해협을 팔아 먹는 것이지 우리 어민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돈내고 생선 사먹는 놈들이 뭘알거나 하는건지 원. 다시는 우리손으로 잡은 고기 안먹으려고. 협정때문에 해협이 작아져 어획량은 턱없이 줄어. 앞으로 일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데 그건 또 얼마나 까다롭다고. 시청에 신고해서 해양수산부, 주일대사관, 일본 수산청에 차례대로 전달이 되어야 하고, 36시간 전에 일본 수산청에 알려야지. 또 허가가 나면 뭘해, 일시작하고 끝낼 때 위·경도 기록해야지, 집어등 켜는 시간 기록해야지. 그럼 고기는 언제 잡아. 고기가 나잡으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고기떼를 만날지도 모르는데.

-어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손실은 얼마로 예상하는가.

= 2000년을 기점으로 많은 어종의 조업이 힘들어 질거야. ‘대게’는 정말 일본

에 어장을 다했다시피했고, 조기나 꽃게는 앞으로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거야. 언론에서 말하는 수치상의 감소는 일반 어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거와는 다르지. 당장 올해 설대목에 팔린 조기와 명태를 내년부터는 당장 팔 것조차 없는 실정인니까. 지금부터 생계를 걱정해야되는 상황이야. 경제적 손실이라는 거 수치로는 못나타내지. 어민들만 죽어가는 것도 아니야. 수산물 생선을 사먹을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들어져.

-정부의 지원에 대한 생각은.

= 배 한척에 30억을 들여서 장만했더니 1억을 주면서 처분하라 하고, 그 나머지 손해를 채워 넣으려면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되는 데 그 일마저 줄었으니, 어민들은 앉아서 당할 수 밖에. 특히 영세어민들은 허가도 나지않는 작은 배로 인근 해안에서 일을 해야하는데 그 걸로는 먹고 살기도 힘들지. 정부가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생계까지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지.

〈인〉

yangkang@cakra.dongguk.ac.kr

'99학년도 1학기 DUBS 방송 편성표

Table with columns for time, day, subject, and location. It details the broadcast schedule for DUBS from 8:30 AM to 5:40 PM, including subjects like '동약의 새 아침', '우리말 알고 습니다', '뉴스', 'DUBS 캠페인', '백상 초대석', '복선의 이해', '민중의 노래', '음악의 세계', 'Campus English', '영화속의 사색', 'DUBS QUIZ, QUIZ', 'The Live', 'Go actubs', and '학업가이드'.

40년 전통 새로운 시작 DUBS

노인문제와 국민연금

충분한 검토후 조속한 시행 바람직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 시행하고자 한 연금제도에 관하여 일부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여가져서 표출되는가 싶더니 급기야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고, 이에 뒤이어 연금공단 책임자의 사퇴와 더불어 국회에서 중요제로 부각되고 보건복지부가 담초의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국민연금 이슈로 부각

최근 벌어졌던 이런 일련의 사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하나는 정부의 중요한 사회정책은 매우 치밀하게 수립되고 신중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제도가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이미 시행중에 있는 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과 더불어 우리 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극히 중요한 복지제도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도의 존재나 확대 시행에 관한 정책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이목을 끌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 데는 오랫동안 경제제일주의가 우리 나라의 지배적인 정책이념과 행정철학으로 정부와 사회를 지배해온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IMF관리체제라고 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경제위기에 직면하다 보니 미쳐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러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의 정책판단의 오류와 제도 준비과정의 미비가 정부에 대한 불신과 행정상 중대한 비능률을 초래한 손실은 없지 않으나 대부분의 국민에게 이 제도의 본질이 어떤것이며 우리 국민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던져 주는 것인지를 알리는데 있어서는 약간이나마 기여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스웨덴, 영국, 덴마크와 같은 유럽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들에 있어서 복지연금제도는 이미

노인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정착되어 있다. 즉,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생계문제, 나아가 사회 및 여가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 연금제도가 중심이 되어 효과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제도가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21세기, 노령화 사회로 갈 것

우리 나라도 이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소득의 증가와 의학의 발달이 국민들의 평균수명을 매년 눈에 띄이게 높여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1세기 초기에 우리 나라도 일본이나 많은 유럽국가들 처럼 노인인구가 국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령화 사회로 이행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이미 여기 저기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노인문제들이 전 지역에 걸쳐 현격하게 증가될 것이다. 하루 세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빈곤, 혼자서는 고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질병,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신장화,



김영중 법정대 행정학과

이런 문제들은 가족과 이웃들이 전통적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너무나 빈절되어 버렸다. 도시사회의 핵가족이 중심적 가구가 되어버린 사회구조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와 사회가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축이 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제도는 그 핵심적 제도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제도나 시책의 부분적 오류를 빗자하여 국민연금의 확대를 차일 피일 미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구체적으로 6개월 연기나 1년 연기 하는 것 보다는 시행체계의 오류를 시정하여 하루 빨리 시행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선택이라는 것이다.

사설

인권대통령을 바란다

지난달 25일 3.1절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이번 사면에서는 예외를 두어 비전향장기수 21명중 17명을 조건없이 석방했지만 여전히 양심수들에게만은 준비사약서를 요구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예초 김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약속한 부분은 경제와 인권이었고, 그의 전력을 신뢰하였기에 많은 국민들이 그를 지지했던 것이다. 하지만 취임 1주년을 맞은 지금에 와서 그 결과는 회의적이다.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수치적으로만 안정되었을 뿐 오히려 민중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졌다는게 일반적 평가이고, 인권신장도 기대에 미흡하며, 어떤 면에서는 전대 정권보다도 더욱 교묘한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김대통령이 공언했던 국가보안법 철폐는 이행되기는커녕, 오히려 이 법을 근거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심수들에게는 기존 사상전향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준비사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3.1절 특별사면 후에도 2백60여명의 양심수가 여전히 수감되어 있고, 50여명의 학생들이 지명수배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교의 경우에도 서울형 96년도 총학생회장인 유병문 군을 비롯해 김명희, 구준서 군 등이 준비사약서 작성을 거부하며 도파생활을 하고 있으며, 96년도 부총학생회장인 원진욱군은 재작년 7월 구속되어 현재 수감중이다.

그나마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과 무죄에 대한 개정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부분개정만으로 김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어렵다. 방법은 국가보안법을 전면 철폐하는 길밖에 없다.

'인권대통령 김대중'이라는 말이 언제쯤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을까, 김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보겠다.

창업보육센터 인가에 즈음하여

대입지원자의 감소로 대학들의 생존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본교도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경주캠퍼스의 경우 역사문화 도시라는 지역적 상황을 토대로 인근 공단과 연계를 통한 대학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시점에서 경주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인가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11월경 지역정책연구소에서 각 과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한 결과 20개과에서 34개의 아이템이 응모됐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계획서와 교수들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대구 경부중소기업청에 지원신청서를 냈으며, 그 결과 지원기관으로 확정, 향후 5년간 중소기업청과 경주시로부터 13억 5천만원 정도를 지원 받게 됐다.

이는 대학내에서 사업을 준비하려는 교수, 학생들이나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캠퍼스 내외의 하이테크·경영기술 전문인력, 창업희망자, 지역 중소기업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 본교에서 지원받는 벤처동아리가 한두개 남짓한 현실에서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은 학생들이 벤처사업을 함에 있어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요건이 조성됐다 하더라도 창업해나갈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만엔 열거된 기회는 물론이거니와 지역과 연계해 문화상품을 만들어 가겠다는 근본취지조차 무산될 것이다.

또, 사이버타임이나 포미시스템 등의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는 포항공대의 보육센터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며,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만이 진정 지역에 도움이 되는 벤처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것이다. 아무쪼록 원활한 홍보와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주캠퍼스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관이 되길 기대해 본다.

교육에 시장원리 도입 타당인가

“공공성보다 생산성 우선한 정책”

장기적 안목과 실정에 맞는 개혁 이뤄져야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이해찬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김영삼 정권의 5.31교육개혁안에서도 나타난 즉, 대학에 무한 경쟁논리를 도입하여 교육의 공공성 보다 생산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뤘다는 국민의 정부를 경제개혁, 정치개혁 등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을 갖는 개혁을 해왔지만 유독 교육정책만은 전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오히려 2천년부터 하기로 했던 교육시장 개방 시일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대학에서도 저비용 고효율을 통한 구조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을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하는 등 '대학평가인정제'를 도입하여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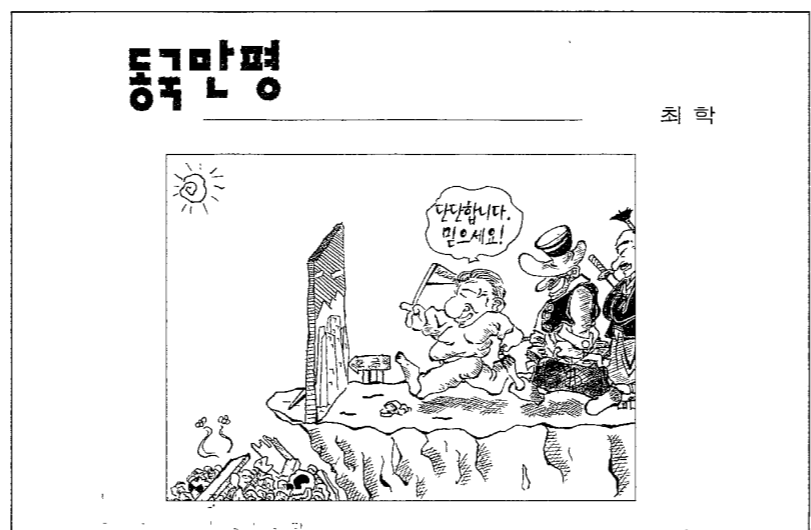
이 제도의 시행으로 대학들은 각각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일괄적인 개혁을 따르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간의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으로 직원과 교수의 연봉제 실시, 정리해고, 대학원 중심 대학과 학부제 전면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조정이 빠르게 실시되고 있다.

대학원 중심의 대학과 학부제의 경우 인문학이나 순수과학분야보다 실용·응용 학문 등을 중심으로 수요와 투자가 집중되는 학문구조 왜곡이 우려된다. 정부의 지원 또한 경쟁력을 갖춘 첨단과학 분야로 집중되고 있어 기초학문에 사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초학문에 첨단 학문의 고른 발전으로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가분야 중심의 대학원 육성책이나 학부제가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갖기 힘들 것이다.

대학 재정의 80% 이상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대학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 대학간의 적자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대학들은 큰 대학에 흡수되거나 교육개방 이후에는 외국대학과 병합하는 길을 가게될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 정은 대학사회에서 학생들이 인가학과를 선택하기 위한 경쟁이나 연봉제, 실적 평가에 따른 교수나 직원들간의 내부적인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학문과 지성의 장이 패아할 대학이 개인주의적인 양상을 띄게 된다.

교육의 목적은 국가발전에서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의 사회에 환원하는데 있다. 시장경제 논리에서 비롯된 교육정책에서 배출된 인물이 업무능력이란 것

추고 국가공동체적인 이상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당초 목적은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이 필요하며, 정부의 일괄적인 개혁정책 보다는 각 대학이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끔 개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대식 기자 ionia@cakra.dongguk.ac.kr

알림 이번호(1265)부터 동국민영 필자가 김경일(미술4)군에서 최학(미술2)군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규 편집인 김주환 부주장 김기탁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미경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n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하이텔, 나우누리 go dgunpress 구독문의 : (02)2260-3491 * 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8 전화 (02)2260-3481 * 2 팩스 (02)2279-1270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107 전화 (056)1770-2657 팩스 (056)1770-2658

DA.COM advertisement for '천리안' internet service. Features a man pointing at a screen with text: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정보가 있는 곳이면 시간 없이 어디서든', '인터넷까지 완전무료', '천리안 정액형!'. Includes a table of service plan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천리안 가입처:(02)653-6001/2 (주)데이콤 강서 지정점'.

대학을 함께 만들어 간다

민주·화합의 토대 마련

“교육시장이 과거

공급자 위주의 체제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학내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중 대학운영위원회는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모습이나 명칭, 기능은

약간씩 다르지만, 현재 몇몇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교 총학생회에서도

대학운영위원회를 제안하고

학교측과 논의중이다.”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의 필요성

‘교육의 민주화는 사회민주화의 토대가 되며 교육민주화가 이룩되지 않으면 사회 민주화는 사상누각이 될 수 밖에 없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1988년 연두 성명의 한 구절이다. 이처럼 대학은 흔히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나라의 대학을 보면 그러 하지 못했다.

한 사회의 엘리트 집단인 대학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육관료의 전횡이나 사학재단의 각종 횡포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들 수 있는데, 해방이후 식민지적 유산에 의해 세워진 대학들은 어용교육관료와 족벌체제의 사학재단에 의해서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에 의해 물들었다. 이러한 파행으로 접철된 해방이후 50여년의 대학역사 속에서 대학의 민주화는 멀기만 했다.

그러나 1998년 이러한 대학의 파행을 없애기 위해 대학의 주체들이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학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부 대학에서는 이를 건설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학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국내 교육시장이 공급자위주의 교육제도에서 수요자위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교육의 자주성과 관련된 대학운영위원회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교수, 직원, 학생 더 나아가 동문이나 학부 모까지 참여함으로써 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제안된 협의체이다.

지금까지 학교당국은 예산편성이나, 학사운영, 교수임용 등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밀실행이라는 비난과 함께 구성원들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평의원을 둘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6조2)’라는 조항과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각 대학의 주체들은 대학운영위원회, 대학자치협의회, 대학발전위원회등의 여러가지 명칭의

위원회를 구성해 학사운영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국어대학교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최종심의감사기구인 대학평의위원회가 지난해 조규철 현 총장의 제안에 의해 건설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여론화 작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총학생회측은 밝혔다.

또한 이와 유사한 것으로 현재 국·공립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운영에서 소외되어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교장의 학교운영권을 제한하고 학교내의 갈등을 조정하는 조직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학교 운영을 민주화, 투명화하고 학생들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개정은 선행조건

그러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대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그리고 설립 구성한다하더라도 그 기능을 어느정도까지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은 대학총장을 임명하고(제53조 제1항) 교원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제53조의 2 제1항). 또한 교원을 기간을 정해 다시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는 등(제53조의 2 제3항) 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의 책정 등 학교운영에 중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운영에 있어서 좀더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이사장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구성원간의 인식공유 필요

또한 대학운영위원회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필요하다. 아직 대학운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위상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결정을 힘을 얻기 어렵다.

학내구성원들이 대학운영위원회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공유작업을 선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칫 논의자체가

미흡할 경우 과거에 보여온 학내구성원간의 소모전 양상으로 비쳐지는 시행착오를 거듭해서는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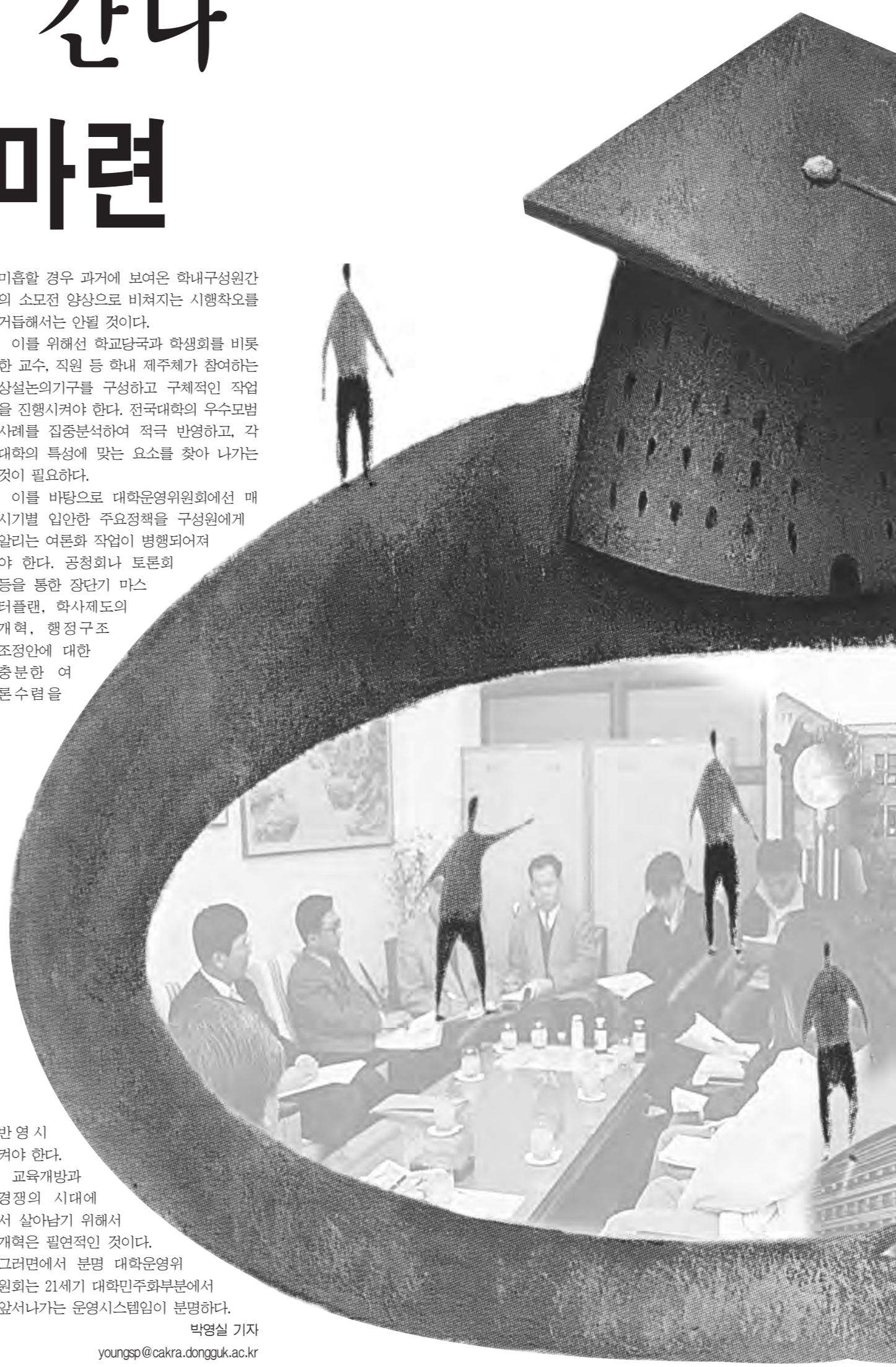
이를 위해선 학교당국과 학생회를 비롯한 교수, 직원 등 학내 제주체가 참여하는 상설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전국대학의 우수모범 사례를 집중분석하여 적극 반영하고,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요소를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운영위원회에선 매 시기별 입안한 주요정책을 구성원에게 알리는 여론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한 장단기 마스터플랜, 학사제도의 개혁, 행정구조 조정안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을

반영시켜야 한다.

교육개혁과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개혁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분명 대학운영위원회는 21세기 대학민주화부분에서 앞서나가는 운영시스템임이 분명하다.

박영실 기자
youngsp@cakra.dongguk.ac.kr



학생증 추가신청

99학년도 1학기부터 학번변경과 학생편의 극대화를 위하여 개선된 학생증의 추가발급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학생증의 기능
 - 가. 도서관 출입 및 도서대출·반납기능
 - 나. 교내복지시설 이용기능(식당 등)
 - 다. 현금 및 직불카드기능(제일은행)
 - 라. 버스카드(버스충진소에서 충전하여 사용가능)
 - 마. 지하철차크기능(향후 교통카드 통합시 사용가능)
- 학생증 발급신청서 제출
 - 가. 대상 : 학부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대학원 신입생(특수대학원 포함)
 - 나. 기간 : 99. 3. 2(화) ~ 99. 3. 4(목)
 - 다. 신청서 교부 및 제출장소 : 소속대학 교학과
 - 라. 제출서류 - 학생증 발급신청서(소정양식)
 - 반명합판 사진 1매
 -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마. 최초 발급비용 : 무료
- 유의사항
 - 가. 위 기한까지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학생증을 99. 3. 22(월)에 교부예정입니다.
 - 나. 본 학생증은 전자화폐기능이 있음으로 분실시 반드시 학교(장학과)와 제일은행에 신고하여야 급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잔액 환불처리). 다만, 버스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분실시 전액 손실처리 됩니다.
 - 다.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은 장학과에서 즉시 발급합니다(수수료 5,000원 부과).

서울캠 학생처장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

99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기간 : 99. 3. 4(목) ~ 8(월) 09:30~21:00, 3일간(토, 일요일 제외)
 - 장소 : 교내 컴퓨터 실습실
 - 대상 : 전교생(신입, 편입생 중 추가합격자는 금번 기간에 수강신청할 것)
 -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원 배부 : 각 대학 교학과 및 학부(과)
 - 유의사항
 - 가. 개인별로 배부되는 수강신청확인원에 본인의 수강신청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정원을 작성하여 PC정정후 교학과에 제출할 것.
 - 나. 교과목, 학수번호, 강좌번호 및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다.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는 교양교과목 및 일부 전공에 대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하며, 교과목의 수강제한인원 범위내에서만 수강신청 정정이 가능하다.
 - 라. 시간표의 변경사항(분반, 폐강 등)은 조정강의시간표 및 각 대학 교학과에서 확인하기 바람. 자세한 수강신청 정정요령은 종합강의시간표내 메뉴얼을 참조하기 바람.
 - 마. 분반으로 인하여 수강강좌가 변경된 학생은 이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별도 정정이 필요없으나, 일부 전공은 학부(과)에서 지도받아 수강정정기간 중 학생이 수강신청 변경해야 함.
 - 바.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원은 학생이 작성한 후 학업지도 교수 및 학부(과)주임교수의 승인(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함.
- ※ 학업지도교수 및 학부(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원 지침서만 컴퓨터실습실에 인접할 수 있음.

서울캠 교무처장

특별시험

1. 시험과목

학수번호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험시간(예정)
RGC005	교필	컴퓨터활용과실습1	1	09:00-09:50
RGC008	교필	실용영어1	1	10:00-10:50
RGC006	교필	영어회화1	1	11:00-

- 응시자격 : 99학년도 신입생(1학년 복학생 포함)
- 전형료 : 과목당 30,000원
- 최대신청학점 : 3학점(3과목)까지
- 원서접수기간 : 99. 3. 2(화) ~ 3. 4(목)
- 시험일시 : 99. 3. 6(토) 09:00~
- 접수처 : 교무처 교무과
- 전형방법
 - 가. 컴퓨터활용과실습1: 제시된 문제의 답안을 디스켓에 저장하게 한후 이의 내용을 근거로 평가(워드프로세서, 엑셀, 프리젠테이션, 인터넷 정보검색등의 실습테스트).
 - 나. 실용영어1 : Native Speaker가 녹음한 테이프를 Listening test 실시함.
 - 다. 영어회화1 : 5가지 항목의 평가기준(발음, accent, intonation, 문장구조, 어휘의 풍부성)에 근거하여 외국인 교수와 Interview로 전형.
- 합격자 발표 : 99. 3. 11(목) 14:00
- 성적등급표시 :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A+, A°를 부여함.
- 유의사항
 - 가. 특별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성적은 포기할 수 없으며, 정규학기에 해당과목은 수강신청을 불허함.
 - 나. 고사실은 원서접수시 안내함.

서울캠 교무처장

외국어교육원 특강

구분	ENGLISH CONVERSATION				TOEIC	LISTENING		
	BASIC	I	II	III				
오전	07:50 ~ 08:50	Michael McDowell (강의실A)	Robert Burgel (강의실B)	Ross O'Connor (L309)	Paul Sather (L310)	Brian Benfer (LAB A)	James Crossman (LAB B)	
		Roy Choi (강의실A)	Paul Treadway (강의실B)	Bruce Dawson (L309)	Bridget McGrath (L310)	Josep Schouweiler (LAB A)	James Brache (LAB B)	
오후	18:00 ~ 20:00	영어회화 초·중급 : Paul Sather(강의실 A) 이 강좌는 매주 화·목요일(2일)만 실시되며 직원들만 접수가 가능함.						
		수강료		50,000원	40,000원	40,000원		
기간	99. 3. 8 ~ 99. 4. 16(6주 : 매주 월~금)							
접수처	외국어교육원(동국관 L동 2층)							
접수기간	99. 3. 2일부터(각 선착순 마감)							

서울캠 외국어교육원

본교 총학, 대학운영위원회 제안 그 이후

서로간의 입장차이로 의견조율 어려워 개강 이후 윤곽 드러날 듯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캠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가 제안했던 가정 '대학운영위원회' 건설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1학기 개강을 앞둔 시점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총학생회와 학교당국간의 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등록금 협상에 집중된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논의'라는 틀은 찬성하지만 그 형식이나 성격에 대한 견해차가 큰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총학생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운영위의 구체적인 상은 총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학부생, 대학원생, 직원 등 학내 재주체 대표 각 2명을 구성원으로 하고,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하는 독립기구이며 △본교의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하는 기능 △학교의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권 △재단과 학교의 운영에 심각한 의혹의 발생시 외부감사 실시 등을 주요권한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의결기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결기구에 대해 송석구 총장은 본사와의

총장 취임 인터뷰(본보 1면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옴부즈맨' 제도와 같은 논의기구 구성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의결기구화 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학생처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학생

쟁점사항

학교당국

“옴부즈맨 제도같은 논의기구 구성은 동의하나 견제와 감시기능으로 국한해야”



총학생회

“진정한 발전을 위해 의결과 집행기능까지”

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에도 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사안별로 각각의 대표들끼리 만나서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며 “의결기구라는 큰 틀을 정해 놓고 그 속에서 논의를 가져가는 것은 자칫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난 88년 학

원자주화 투쟁의 성과물로 만들어졌던 '동국발전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인 학내 재주체들의 소극적인 참여와 각 주체 중심적인 논의진행 등을 실패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학생회 학원자주화 투쟁위원회의 이석진(수교4) 위원장은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학운영위원회는 진정한 발전을 위한 자리이지 이권 다툼의 자리가 아니다”라며 “학교당국의 좀 더 진취적이면서도 통큰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재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학내 재주체들은 '논의기구'라는 틀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 다만 '견제와 감시'로 그 기능을 국한시킬 것인지, 아니면 '의결과 집행'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개강이후부터 학생들에 대한 교양과 과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석중·대학원 입학과 박사과정 2학기) 또한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전후해 모든 학내 재주체들이 참여하는 '대학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내 재주체들의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교의 구체적인 대학운영위의 상은 이 대토론회를 전후로 한 시점에서 그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다른 대학 진행 상황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해 10월 '대학운영위원회'의 건설과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목표로 8일 동안 벌인 본관점거농성 끝에 학교당국의 협상을 통해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학운영위원회 설치 등 14가지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 관계자 서명을 받았으며 현재 준비 단계에 있다. 총학생회가 구상하고 있는 대학운영위원회의 상은 총장 및 학교당국,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대학원 총학생회 등 학내 민주 단체들을 구성원으로 하며 학교의 잘못된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의결권 확보까지이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는 교수들로 구성된 '대학평의회'가 있다.

그러나 학사운영에 관한 심의 기관에 불과하여 총학은 의결권 확보와 학생 참여를 학교측에 계속적으로 요구중이다.

또한 현재 학칙에만 명시되어 있는 대학평의회를 법령으로 올려 그 위치를 확고하게 하려 하고 있으며 접거농성을 통해 대학평의회에 학생참여 보장을 약속 받은 상태이다.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는 '대학자치협의회(이하 대자협)'가 결성되어 8여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대자협은 교수, 직원, 학생, 학부모, 동문 등 대학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88년과 92년 두차례에 걸쳐 총장선출방식에 있어서 총장후보추천에 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총장 영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해마다 등록금 책정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연도 예산 분석 등을 통해 등록금 책정을 협의하는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사행정을 도출해 왔다.

이외에도 법인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법인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개편작업을 벌여 민선이사

를 세우는 등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 등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렇듯 조선대에서 대자협은 대학내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며 대학내 최고 자치기구로 자리하였다. 그러나 96년도에 총장이 바뀐에 따라 대자협의 존재가 유μφ 무실 해지면서 자문기구로 그 역할이 감소된 상태이다. 총학생회는 자문기관이 아닌 의결권을 지닌 자치기구로서의 부활을 학교측에 요구한 상태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재단과 학교당국의 전횡으로 몸살을 앓았던 외대는 비리 원인을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에 있다고 보고 지난 해 10월 학교운영에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회'를 설립했다.

대학평의회는 '최종심의 감사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의결권 부분에 있어서는 “총장이나 이사회 상위에 또 다른 의결기구는 존재할 수 없다”는 학교측의 입장에 일단은 보류된 상태이나 학교의 중대한 사안 결정시 총장 결재 직전의 심의과정을 담당,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할 수 있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학번변경

2000(Y2k)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에 사용하던 학번을 아래와 같이 신학번으로 변경하여 행하니 전 재학생은 빠짐없이 확인과정을 거쳐 학업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변경대상 :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제적생, 교환학생)
- 시행일자: 3. 2(화)부터
 - 장소 : 소속학부(과)전공별 주임교수 연구실 및 소속 대학 교학과
 - 방법: 99-1학기 수강신청시에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원상에 부여한 신학번을 반드시 숙지 한다. 99학부(과), 전공별 주임교수 연구실 및 소속대학 교학과에 비치된 열람용 자료를 참조한다.
- 기타 : 학번변경이 00 3. 2(화)부터 모든 학사업무에 적용되어 처리되니 빠른 시일내에 확인하여 학업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교무처 학적과 (T. 770-2038-9)

경주캠 교무처장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 기간 : 99. 3. 4(목) - 8(월) 3일간
- 장소 : 교내 컴퓨터실습실*가 대학별 수강신청 장소는 종합강의시간표를 참조할 것.
-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원 교부 및 접수 : 소속대학 교학과 및 학과
- 대상 : 99학년도 제 1학기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포함)
- 초과학점 신청 : 직전 학기 성적이 과락(F)이 없고 평점 4.0이상인자는 학업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3학점까지 초과학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대학 교학과에서 신청한다.
- 유의사항
 - 컴퓨터실습1(2학점)을 미 취득한 학생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99학년도부터 변경 개설되는 컴퓨터 활용과 실습1(1학점, 1학기)과 컴퓨터 활용과 실습2(1학점, 2학기)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 컴퓨터 실습실에 입실한 후에는 다른 학생의 신청을 위하여 신속한 시간내에 신청을 하고 퇴실을 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강의시간표를 참조하고, 수강신청중 의사사항이 있을시에는 해당 컴퓨터 실습실에 대기중인 조교에게 문의한다.

경주캠 교무처장

신입생 모의 TOEIC시험

- 일시 : 3. 4(목) 09:40 - 12:00
- 장소 : 교내지정강의실
- 대상 : 99학년도 신입생 전원
- 고사실 : 별도 지정고사실
- 시험결과 : 3월말 학과, 학부를 통해 개별 배부(예정)
- 시험관리 및 진행 : 학생처 취업과, YBM 시사영어사
- 시험시간표

시 간	내 용
09:40	입실완료
09:40-09:50	답안지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설명
09:50-10:00	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10:00	시험시작
10:00-10:45	L/C(Listening Comprehension)
10:45-12:00	R/C(Reading Comprehension)
12:00	시험 종료

- 응시자 주의사항
 - 시험시간을 절대 준수하며, 반드시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
 - 시험답안지는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표기하므로 컴퓨터용 싸인펜을 준비
 - 기타시험에 관한 의사사항은 학생처 취업과 (T. 770-2054, 2055)로 문의

경주캠 학생처장

대 학	학부 및 학과	고 사 실	비 고
불교문화	불교학부(60)	A304	원효관 3층
	불교이동학과(50)		
	국악과(50)		
인문과학	국어국문학부(100)	A207, A208, A209	원효관 2층
	사회체육학과(50)		
	외국어문학부(162)		
	역사철학부(131)		
	사회복지학과(50)		
자연과학	미술학부(50)	A306	원효관 3층
	자연과학부(130)		
	조경학과(50)		
	컴퓨터정보통신(170)		
	안전공학과(70)		
법정	가정교육과(40)	A309	진흥관 2층 B201
	법정학부(100)		
상경	법정학부(100)	B202, B201, B201	진흥관 4층 B406
	경상학부(361)		
한의과 의과	관광경영학부(71)	B403, 404, 405	진흥관 4층 B406
	경상학부(아-111)		
이부	한의예과(80)	소강당 2	원효관 4층
	의예과951		
이부	간호학과(50)	B408	진흥관 4층
	컴퓨터정보통신학부(아-40)		
이부	법학과(아-40)	B307, B308	진흥관 3층
	관광경영학부(아-40)		

지역소식

중 구

1. 중구 각동별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행사
 일년내내 부스럼을 앓지 않기 위해 부럼을 깨 먹고, 귀밝이 술을 마시며 오곡밥 등을 먹는 대보름날을 기억하는 젊은이는 얼마나 될까?
 중구에서는 각 동별로 고구 민속의 날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웃놀이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다운 이웃도 만나고 게임하는 재미도 즐긴다면 신나는 대보름 잔치가 될 것이다.

일시	동명	개최시간	장소
3월 2일	신당1동	11시~16시	동사무소 3층 강당
	신당5동	10시~16시	신당5동 새마을금고 옆 사거리
3월 3일	소공동	14시~17시	동사무소4층 회의실
	장충동	11시~15시	동사무소 1층
	광희동	11시~16시	쌍림어린이공원
	신당3동	14시~17시	동사무소 4층 강당
3월 4일	신당6동	11시~16시	문화교회 주차장
	필동	11시~16:30분	미도파빌딩 앞 삼거리
	울지로3·4·5가동	10:30~15시	동사무소4층 회의실
3월 5일	신당4동	10:30~15시	동사무소3층 회의실
	중림동	10:30~15시	손기정공원 배드민턴장
3월 5일	명동	11:30~16시	동사무소2층 강당
	황학동	11시~16시	동사무소4층 강당

2. 자원재활용센터 청구공영주차장에 개장
 가전·가구·컴퓨터와 같은 대형폐기물을 신속히 수리·수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연중무휴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자 한다.
 무상수리도 하고 있는데 대상품목은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가구, 일반의류 등이다. 문의2231-45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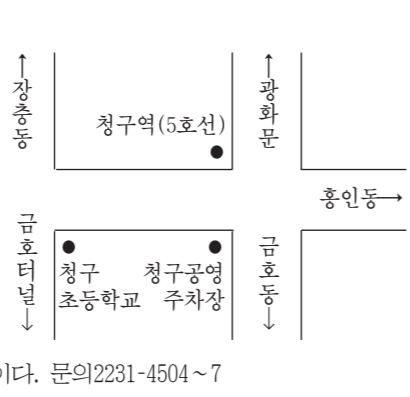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오늘(1일) 오후 2시 경주 동천동 청소년 수련관 앞 복천 고수부지에서는 제2회 정월대보름을 맞아 떡메치기, 쥐불놀이, 지신밟기 등 약 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속 문화이행 한마당이 열렸다.

감포, 방생 대법회
 경주 감포읍 나정 해수욕장에서 내일(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두시간에 걸쳐 정월대보름 달맞이 방생대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참가 예상인원은 약 1천여명이다.

2일 용왕대제 치러져
 내일(2일) 오후 2시 양북면 문무대왕릉앞에서 약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왕대제를 치러진다. 용왕대제를 지내는 불거리를 제공해 줄것으로 보인다.

양동마을, 잔치 열려
 내일(2일) 오전 10시 강동면 양동마을 관리사무소앞에서 약 300여명이 참여해 즐다리기, 지신밟기 등 양동마을 전통민속놀이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중부동, 문화원총회 개최
 중부동 경주문화원 정원에서 오는 6일 오후1시 약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원총회를 가지고, 웃놀이, 제기



경 주

차기등 전통민속놀이 행사가 펼쳐진다.
 황오동, 대규모 웃놀이 한판 펼쳐져
 황오동 구로삼밭 주차장에서 오는 7일 오전 9시 30분에 약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웃놀이가 치러질 예정이다.

힐튼, 춘계학술대회 개최
 지역감정해소법 발표
 정치학회(회장=노동일)는 오는 5일 오후1시부터 8일까지 이틀간 경주힐튼 호텔에서 “동서회합과 지역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서회합, 즉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현실성 있는 처방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의 일정을 살펴보면 5일 1부 개회식에서는 경북대학교 정치석교수 사회로 △국민의례 △개회사 △축사 △환영사를 2부 학술대회에서는 안동대학교 이경준교수 사회로 △동서회합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역할 △동서회합과 정치인의 역할 △동서회합과 언론의 역할 △동서회합과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한다.

6일, 3부에서는 경북대학교 이영우 교수의 사회로 1,2부토론을 종합해 종합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취업정보

- (주)YBM디즈니 영어박사
 관리교사 모집, 전공무관, 3월 5일 마감
- (주)나드리 화장품
 홍보/관측, 전공무관, 3월 5일 마감
- (주)세일인터내셔널
 상품기획자, 관련학과, 3월 5일 마감
- (주)하이리빙 코리아
 경력/신입직, 식품공학/상경계열, 3월 5일 마감
- (주)한국백신
 영업부, 전공무관, 3월 5일 마감
- (주)한국정보컨설팅
 신입인턴, 전산학과관련, 3월 13일 마감
- (주)해강엔스타
 신입직, 어문계열, 3월 6일 마감
- 글로벌유학본부
 유학상담/수속업무, 전공무관, 3월 6일 마감
- 중공공상은행 서울지점
 전산직, 컴퓨터/전산학, 3월 8일 마감
- (주)대평양생명보험
 영업관리자 후보, 전공무관, 3월 6일 마감
- 합솔학원
 관리교사, 전공무관, 3월 5일 마감
- 문의 서울캠 취업과2260-3054/3055
 (주)보림웨딩 이벤트
 기획사무원, 경북대구 근무, 053-631-8360
- (주)라이텍
 관리사무원, 경북포항 근무, 0562-284-1350
- (주)창현
 남·녀 관리사무원, 경북포항 근무, 0562-284-9000
- 경주세무회계사사무실
 회계사무원, 경북포항근무, 0562-231-0743
- (주)대동전자
 자재 사무원, 경북 칠곡 근무, 0545-973-6277
- (주)삼익설비
 관리사무원, 경북대구 근무, 053-358-6917
- (주)성림정밀
 생산관리원, 경북고령 근무, 0543-955-7541
- 삼성산업
 제품관리사무원, 경북대구, 053-636-2038
- (주)범서정공
 자재사무원, 경북대구 근무, 053-639-1881
- (주)경일
 회계 및 부기사무원, 경북구미 근무, 0546-455-9922
- (주)보광섬유
 관리사무원, 경북대구 근무, 053-254-3870
- 한성식품
 관리사무원, 경북대구 근무, 053-552-3323
- (주)보림웨딩이벤트
 기획사무원, 경북대구 근무, 053-631-8360
- (주)성우 전자공업
 총무사무원, 경북구미 근무, 0546-471-6585
- 일신유틸리티
 판매관리사무원, 경북대구 근무, 053-325-0138~9
- (주)동부생명
 일반사무원, 경북대구 근무, 053-427-9603
- (주)대형 예식장
 기획사무원, 경북포항 근무, 0562-81-3000

오늘의 글

김정훈 (대학원 국문학 석사과정 1학기)

“내 힘으로 일어서리라” 해외봉사활동 중 사고당한 국문학도

“가장 큰 소망은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장애인 재활 센터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던 중 운동을 하다가 트랙 아래로 떨어져 척추 장애를 입은 국문과 석사 과정의 대학원생 김정훈씨. 낯선 이국 땅에서 험한 단신으로 혼수상태에 있다가 깨어나 현재는 수유리에 있는 국립 재활원에서 치료 중이다. 절전을 해서인지

병원의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김씨는 장애의 고통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 밝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사고가 있기 전인 국교과 재학시절 김씨는 과학사회장을 했을 만큼 외향적이었다. 그렇게 활동적이었던 그가 정신이 마비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이 알려지자 김씨는 계속 교수를 비롯한 국교과 학생들은 지난해 7월 이래로 모교 캠페인을 벌여 왔



다. 그들의 노력에 대해 “사고를 겪은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이 견디기 힘들지만 옆에서 마음을 다독여 주었던 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일어서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습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해외 자원봉사원으로 선발되었던 당시의 소감을 “인생의 경문을 넓힐 수 있어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밝히는 김씨. 고추장과 라면을 챙겨

매고 비행기에 올랐던 설레임과 기대감은 ‘프랑스, 이탈리아인 등 동양인이란 고는 혼자밖에 없는 상황이 황당하지만 내 평생 가장 흥미로운 기간이 될 것’이라는 것은 7월 5일자의 일기 속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한 순간의 사고로 기쁨이 고통으로 뒤바뀐 지금 김씨는 “내 인생에 대한 절망이 크게 휘어져 버렸죠...”라며 말꼬리를 흐린다. “지금은 모든 것이 유예상태입니다. 장애가 있기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국문학에 뜻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공부는 계속하고 싶습니다”라며 재기를 다짐했다.

이대수 기자 ionia@cakra.dongguk.ac.kr
 김정훈씨 돕기위한 모교캠페인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호응은행 313-04-557663 김혜숙)

의학상식



임성우 (한외과대학 한외과과 교수)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성의 79%가 음주를 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알콜 상습복용자이고 적어도 1백60만 명 이상은 알콜 중독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술은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기호식품이나 그 역사만큼 부작용도 많았다.
 세상의 모든 약이 적당량을 취했을 때는 약이 되지만 과량을 사용했을 경우는 독이 되는 것처럼 술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한방에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질환을 일컬어 ‘주상(酒傷)’이라 했으며 그 증상으로 메스꺼움과 구역, 정신혼란, 가슴이 답답하고 막힌 듯한 느낌, 음식 먹을 생각

과음하기 쉬운 학기초, 적당히 마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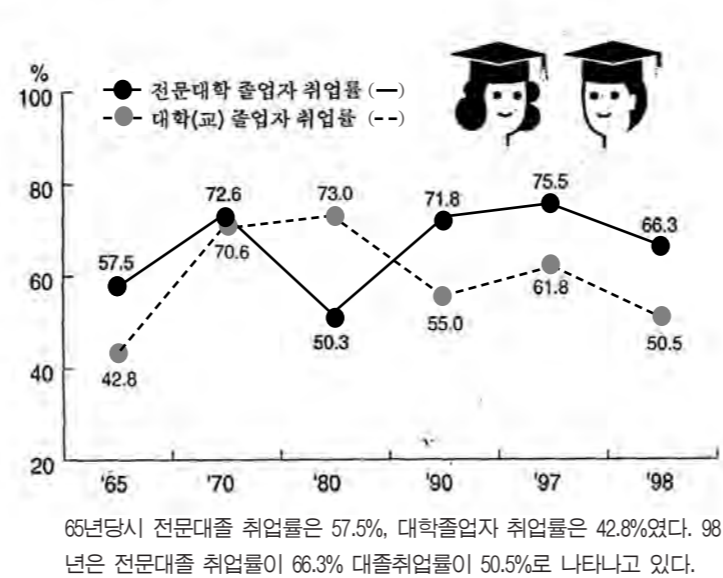
숙취제거, 오이즙·유자차·미온목으로 풀어야

이 없거나 소화불량, 소변이 시원하지 못한 느낌, 두통 등이 있다. 그리고 치료법으로 술로 인한 습독을 인체의 상하로 나누어 제거하기 위해 뱀을 내게 하는 발한과 소변을 잘 배출시키기 위한 이뇨를 제시하고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술은 열이 있고 유독하다고 하였으며, 술을 마신 후 면류와 전분질 식품을 먹으면 통기가 생기고, 술이 깨기전 물이나 차를 마시면 술독이 신장에 머물러 다리와 허리에 통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또 단맛이 나는 음료를 마시게 되면 속이 거북해지며 토하기도 한다고 했고, 지나치게 술을 마신 경우 오히려 토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세상의 모든 약이 적당량을 취했을 때는 약이 되지만 과량을 사용했을 경우는 독이 되는 것처럼 술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체질적으로 술이나 술 의 물을 잘 마시는 사람 중에는 태음인이 많다. 간이 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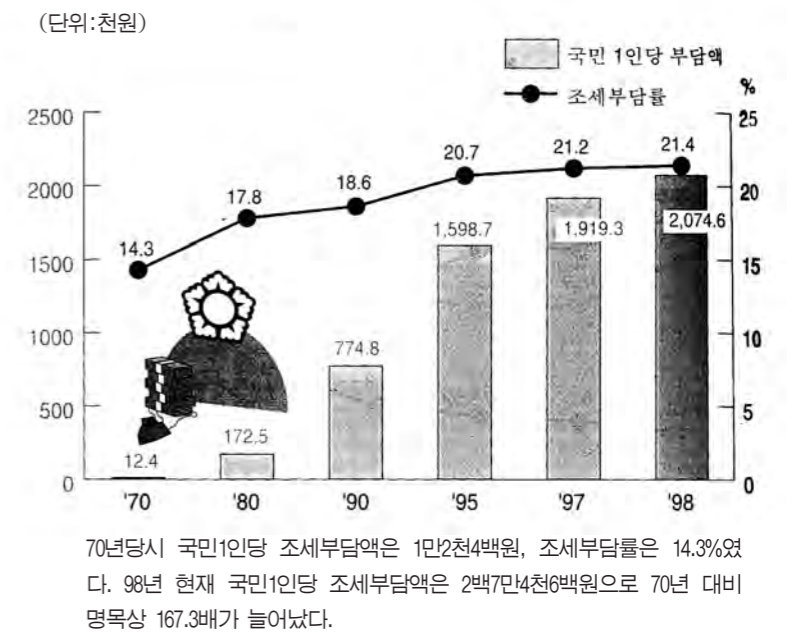
한 체질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곡물있는 음식 물을 많이 마시며 술도 즐기는 편이다. 또 같이 마셔도 숙취로 고생하는 것이 덜한 사람도 많다. 그런데 조금만 마셔도 취하거나 숙취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간이 약한 체질인 태양인에게 많다. 소음인의 경우는 비위가 약한 체질로 과음을 하거나 찬 주류를 먹을 때 속이 냉해져 설사를 일으키기 쉽게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찬 맥주 같은 냉한 술종류를 먹게 되면 잘 안 받고 소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술을 덜 취하면서 마시기 위해 과일을 함께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과일이 주독 해소와 더불어 간에 영양공급을 하기 때문이다.
 숙취제거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자면 숙쓰림에는 모과를 설탕에 잘 재운 다음 먹거나 불린 쌀을 팥아 소금으로 간을 한 후 물을 부어 마시는 방법이 있다. 술기운이 남아 있어 정신이 맑지 못한 경우 오

이즙을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다. 차로는 울무차, 유자차, 찰차, 감잎차가 있는데 체질별로는 찰차와 울무차는 태음인, 유자차와 감잎차는 태양인과 소양인에게 좋다. 그외에도 콩나물국, 북어국, 우유, 무를 먹거나 미온목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술냄새가 날 때는 커피가 알콜 요소의 분해는 물론 신장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도움을 준다.
 쓴 맛으로 마시는 커피에 설탕을 타는 일이나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을 덜 취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은 어쩌면 아이러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단편술의 제목이기도한 ‘술 권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우리의 일상, 부득이하게 부딪히는 술자리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몇가지 방법들을 써보는 것도 괜찮다고 하겠지만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지나친 음주로 인해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이 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졸업자 취업률



조세부담액 및 조세부담률



그래프뉴스

이 임 수가 보는 세상

미래를 좌우하는 언어정책 ‘신중히’ 결정해야

한글, 세계에서 인정받은 우수한 언어임을 잊지말 터

사람은 나이를 먹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많이 배우거나 할수록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알고 말을 아끼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을 보면 우리의 전통적인 덕성을 잃어가는 듯하여 씁쓸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자 병용(併用)이나 한자교육 강화의 문제도 많은 사람들과 역대 정부 정책에서 고민해오던 문제인 것을 한 두 장관과 대통령 등이 마치 전문가들인 양 옹기 있게(?) 결정하고 언론에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어는 한글이며 한글이 편리하고 우수한 문자임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한글의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의

경제력을 갖춘 문명국에 이를 수 있었던 교육적 밑바탕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모든 국가 중에서 문명퇴치에 공헌이 많은 사람들에게 국제적으로 공인된 세종(대왕)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자(漢字)라는 문자는 우리 동양의 고대에서 중세까지 모든 문화를 기록하던 공통문어(共通文語)였기에 한자교육 또한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학자들이나 정책입안자, 일반인들의 생각도 다양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여 진지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개인적으로는, 중학교에서는 한자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한자교육만으

로 족하고, 고등학교의 자연계 및 실업계에서는 일상에서 쓰이는 상용한자 정도를, 인문계에서는 일주일에 3-4시간 정도(서양에서의 라틴어교육과 마찬가지로의 비중)의 한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학문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국어교육(한글 문장교육)과 전공에 맞는 한문교육으로 선학(先學)들의 연구물들을 통독하고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추게 해야 한다.
 교육이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에 계획적으로 검증되어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더욱이 언어정책은 그 민족의 미래를 담보로 하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하여



이 임 수 (인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겸손하지 못하다.
 대학에서 20년이나 국문학을 전공한 교수인데도 우리말을 정확히 쓰는 것이 쉽지 않으며, 더불어 한문이 얼마나 어려운 문자인가를 절실히 느낀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한자를 배우는 고통을 더 이상 물려주지 말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 학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노력으로 한문을 번역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TEL:22603491·2/(0561)7702057·8 FAX:22791270 하이텔·나우누리 PC ID:dgpress

소나기

한자병용



△한자병용 지침은 노동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강요에 다름 아니다. 한글로써도 충분히 의미가 파악되는데, 저들은 위선을 부리고 있다.

△한자, 한자, 차근차근 읽으면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왜 한자만 병용하나요, 영어는 어떻게 하고... 이기에 아예 영어 병용까지, 예라...

△누구를 위한 한자 병용인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상식을 무시하는 바보들...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한자가 웬 말이냐!

△한자를 없앤다고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까? 한자가 한글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못할까? 각자가 서로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보의 원활한 전달 및 정보전달 기회비용의 축소는 국가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함, 과거 역사를 볼 때 부국했다던 나라일수록 정보전달 문자의 고도화는 타 국가에 비해

월등했다. 따라서 한자병용은 다소 개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국가정책상 한자병용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난 싫어! 나두. △한자병용, 어려워서 싫은가요? △한:한글은 자:자신있게 말한다. 병:병든 한자는 용:(용)원히 사라지라고...

△한: 한글의 자:자주정신에 병:병용이라는 말을 용:용케도 하려는 우리들...

△한자는 내친구 병용이가 무지 싫어한다. △현실적으로 한자병용이 타당치 않다고 하던데 꼭 하고 싶소.

△문화관광부장관이 병용하자는데 문체부 장관도 OK인가? △문화관광부 장관은 죽어서 세종대왕 안볼건가요?

△하겠다는 거가 말겠다는 거가! 나하고 의논해!

△한글전용으로 정리해고된 훈장을 살리자는 기발한(?) 아이디어. △하면 죽어!

다량관 학생 차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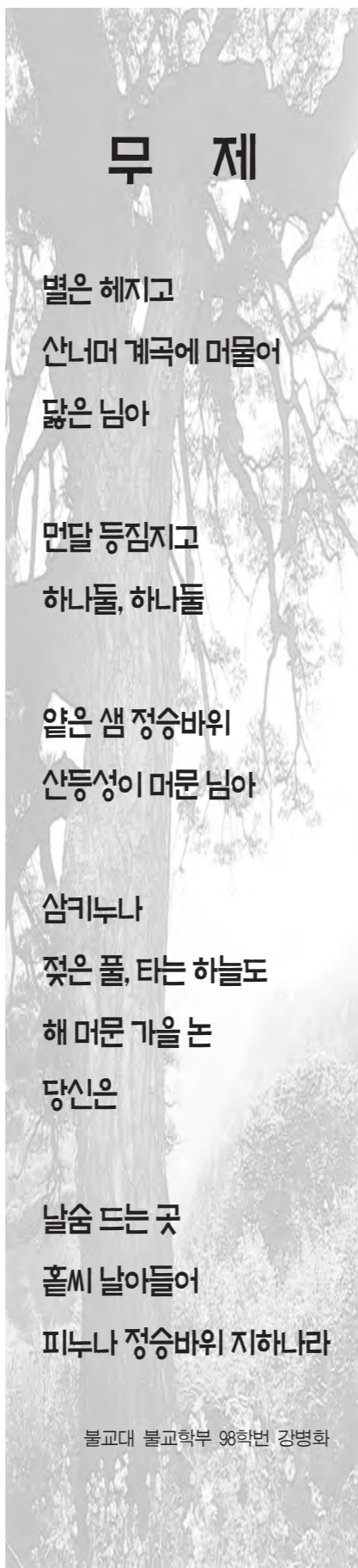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화, 수, 목, 금) and List of items (e.g., 생선까스(1300), 돈육짜개(1300), 오징어볶음(1300), 김치수제비국(1300), 불고기백반(1500), 콩비지짜개(1300), 스파게티백반(1300), 고구마별미밥(1300)).

(단위:원)

룸비나관 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화, 수, 목, 금) and List of items (e.g., 김치볶음밥(1300), 살랑탕(1300), 동태매운탕(1300), 김치볶음밥(1300), 탕수육백반(1500), 만두국백반(1300), 부대찌개(1300), 탕수육백반(1500), 잡채밥(1300), 갈비탕(1500), 콩나물국(1300), 잡채밥(1300), 양송이볶음밥(1300), 찹치김치찌개(1500), 꼬치어묵국(1300), 양송이볶음밥(1300)).

(단위:원)



불교대 불교학부 98학번 강병화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이번호부터 만화필자가 김경일(미술4)군에서 최학(미술2)군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늘 발전하는 모습 기대합니다. -진전희

△원기오빠, 뒤늦게나마 졸업 축하드려요. △은호오빠, 졸업(?) 축하드려요. 올 한 해는 아니지만 학생회 일도 열심히 하시구요. △불대 새내기여러분! 입학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끼리

△새내기여러분! 입학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교대 새터! 백담사와 낙산학사로 성대히 다녀왔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어. -불교대 △공과대 과/학부 학생회장님! 새터 준

△수고하셨습니다. △불교대 새터! 백담사와 낙산학사로 성대히 다녀왔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어. -불교대 △공과대 과/학부 학생회장님! 새터 준

△수고하셨습니다. △불교대 새터! 백담사와 낙산학사로 성대히 다녀왔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어. -불교대 △공과대 과/학부 학생회장님! 새터 준

△수고하셨습니다. △불교대 새터! 백담사와 낙산학사로 성대히 다녀왔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어. -불교대 △공과대 과/학부 학생회장님! 새터 준

△수고하셨습니다. △불교대 새터! 백담사와 낙산학사로 성대히 다녀왔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어. -불교대 △공과대 과/학부 학생회장님! 새터 준

대학원 예산, 투명성 확보해야

대학원 중심대학을 표방하는 본교에서 대학원 예산확보는 결코 작은 문제 일 수 없다. 학술 연구비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 절감에만 혈안이된 학교당국의 맹목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다.

지난 10년간 교비지원을 동결했다는 사실과 대학원 중심대학이라는 화려한 잔치 뒤에서 만년 지하실에서 학생들 사비를 털어 추위와 더위를 이겨낼 것을 강요하고 있는 학교당국의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다.

현재 대학원예산은 교비와 학술연구비로 이루어져 있다. 예산은 크게 학생활동

지원비와 대학원 학사운영 및 사무용비 품구임비로 쓰이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학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주어진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자로 이월된다는 것에 있다.

학생들만이 공부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학원이 발전할 것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대학원 중심대학에 대한 교육부 기준이 학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학술연구비와 교비가 무순근거로 책정되는가를 밝혀야 하며, 그 속에서 합당한 비용을 다시 책정해야 할 것이다.

대학원 정칙적 석사과정 4학기 이병재

후배들에게 모범적인 선배상을 보여주자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떠나 보냈다.

그 짧지만 하던 봄, '새내기'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날이 새로움에 생기던 얼굴로 이 모든 캠퍼스가 자기것인양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기도 했다. 이제 그 새내기라는 호칭에 점점 익숙해질 무렵 또다시 찾아오는 3월 푸르디 푸른 새내기들을 '선배'라는 이름으로 맞이할 때가 다가왔다.

우리들은 과연 이들을 위해 선배로서 부끄럽지 않은 조언과 생활상에 대해 얼마나 자신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낯선 공간에서의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문화들을 접하며 살아가야할 이들에게 얼마 뒤 폐쇄적이고, 향락적인 문화와 삶을 말해줄 준비는 하고 있는지 않은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대학문화는 음주권으로 접어든지 이미 오래이다. 순진한 새내기들, 인생,대학의 선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믿고 따라가야만 하는 처지. 그리고, 그들의 말이 100% 진실인양 우상시하고 그들과 같은 모습의 소유자이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대학문화는 술에서부터 시작한다.' '주(酒)동아리' 흔히 우리들이 대학내에서 듣는 말이다. 단순히 이를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러한 말들이 때를

게 되는데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보아야한다.

얼마전 고교 후배에게 대학문화에 대한 물음을 던진적이 있다. 그러자 후배는 '대학문화는 노는 문화다.'라고 짧게 답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우리대학은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이를 만큼 문예,학술적인 면모가 가득했는데, 지금의 우리대학은 이를 먼 과거 이야기로 접어두려는 성향이 짙은것 같다.

선·후배간의 친목차원에서 즐기는 음주는 그 목적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정도가 얼마큼 지나친가. 그렇지 않은가. 따라 퇴폐적이다 또는 향락적이다를 가늠할 수 있을것이다.

음주문화 뿐만이 아닌 놀이 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낮과 밤이 뒤바뀌는 불규칙한 생활속에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채우기위해 소비되는 수 많은 시간들과 현실감 넘치고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진정한 것들이 우리대학문화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활속에 흠뻑 젖어온 우리들은 99학번 비둘기 같은 신입생들에게 이러한 문화를 그대로 물려줄 것인가?

선배로서 항상 새로움에 젖어있을 우리 후배들을 위해 건전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것이 보다 절실함을 깨달아야하겠다.

인문과학대 한국어문학부 1 김태숙

1264호 동대신문을 읽고

대학신문다운 비판정신 부족

졸업과 입학을 앞둔 때라 그런지 이번 호 동대신문에는 졸업과 등록금에 대한 기사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1면에는 의외로 '한총련 대의원 탈퇴 권유문'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TV나 신문 등의 다른 매체에서는 아직까지 소식을 접하지 못한 (케으른)필자로서는 당혹스러움과 더불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특히 3면의 사설에 이르러서는 IMF라는 초유의 자본의 위기 이후 점점 더 어지러워 가는 상황에 대해 정작 기자의 눈초는 감성적으로 흐른 게 아닌가 한다. 칼날과 같은 비평인 무기인 대학신문에서 이런 사설은 오히려 기성 신문의 눈초를 닮은 것 같다는 것이다. 또한 '학문의 상아탑'이 이미 무너지고 정상적인(?) 학제 과정만이 인정되던 시기도 지난 때에 대학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만을 가진다면 그것은 어설픈 자위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대학에서 배워야 할 것이 단지 교과서적인 지식이라면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지독하게 머리 속에 집어 넣어 왔으며 실질적인 기술일 뿐이라면 차라리 학원을 가서 배우면 된다. 우리가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만치

않은 비용을 들여가며 대학이라는 곳에서 보내는 것은 그곳에는 중·고등학교나 학원, 일반사회에서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대학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2면의 '동답이'에서는 졸업을 소재로 다루었는데 취업난에 상심해하는 졸업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옳으나 예전의 날카로운 풍자와 권력억 그토록 증오해 마지않는 운동권이아말로 쓰러져 가는 대학문화에 마지막 양심이 아니겠는가. 대학 또한 현시류에 맞춰 나아가야 된다는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이 영똥한 대만 신경쓴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대학인은 엄연한 예비 사회인이다. 그들이 대학에서마저도 사회에 대한 올바른 비판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대학은 그야말로 'post-고등학교'일 뿐이다.

대학에서 배워야 할 것이 단지 교과서적인 지식이라면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지독하게 머리 속에 집어 넣어 왔으며 실질적인 기술일 뿐이라면 차라리 학원을 가서 배우면 된다. 우리가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만치

인문학부 한학원 전공 4 이동희

미래를 위해 계획적인 준비 필요

대학생활 1년이라는 시간은 지난 12년간 맛보지 못한 자유를 충분히 맛보게 해준 시간이었지만 대학이라는 곳에 대한 허무함도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다.

대학 졸업과 함께 뚜렷한 대용 한번 못해보고 실업자로 전락해야만하는 선배들의 모습에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신성한 토론회장.

처음에는 2백여명의 학생들이 커다란 강의실을 가득메워 대부분의 학생들은 좋은 자리를 잡기위해 부지런히 나왔고 나 역시 나름대로 계획한 방학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학생들의 수는 줄어들었고 심지어는 30여명의 학생들만

출석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었다. 2만원의 저렴한 강의라서 그랬는지 출석을 하지 않고도 하나도 개의치 않는 친구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돈만 내놓고 한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구제금융 시대에 대학생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염두해 볼 때 이러한 모습은 눈 앞의 위험 밖에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같다.

도서관에 처박혀 공부만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예비 실업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학생으로서 최소한 자신이 계획한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만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과대 사회과학계열 박용수



문득 한번쯤은 돌아보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비하고 무사히 다녀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은정아, 이젠 3학년이구나. 도서관에서 열심히 만나자. -영

그리고...

△여러분! 잘 놀고 잘 어울리고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지금처럼. 처음 마음 그대로 생활하시길... -98풍물굿패 한 선배 △신임 문봉현(94)부장님 힘드셨죠. 너는 더 고생해야 된다. 그래야 작년 선배들의 고충을 이해하겠지. -93 떨거지

△새내기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을 환영합니다. △삼진오빠, 행복하게 사세요 카메라 작업 열심히 하시구요. -보살사상 연구회

△새내기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을 환영합니다. △삼진오빠, 행복하게 사세요 카메라 작업 열심히 하시구요. -보살사상 연구회

△새내기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을 환영합니다. △삼진오빠, 행복하게 사세요 카메라 작업 열심히 하시구요. -보살사상 연구회

△새내기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을 환영합니다. △삼진오빠, 행복하게 사세요 카메라 작업 열심히 하시구요. -보살사상 연구회

△재우선배, 강서에서 짜장면 사드린다는 약속 기억하시죠? 중국것과 비교처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축하합니다

△ROTC 37기 동기들이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전에서든 멋진 장교가 되기를 바란다. -前S4

△인찬아 군대 이번에는 진짜로 간다니 축하한다. 빨리 갔다 오나라.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해병대 안간다니 다행이구나! 고생안하고 다녀오길 바란다. -Y.W

△이쁜 NORA 현주의 대학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다른 NORA

알립니다.

△동국음악회 20주년 행사가 5월 중순에

있을 예정입니다. 뜻있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길... -0652

△김응진이 도신정을 뒤로하고 국방부의 뼈때를 받고 훈련소에 갈 예정입니다. 과 친구 여러분 위로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S와 Y

수고하셨습니다

△한문학과 투쟁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97졸 길

△선자, 미정이 2년동안 같은반 하느라 수고 많았다. 서로 만나지 못해도 서로를 생각해주며 살자꾸나! -친구가

열심히합니다

△올해는 불기 2543년입니다. 확실히 확인하시고 제대로 씹시다. 학우들은 확실한 신문을 바랍니다. -행아가

△올해는 불기 2543년입니다. 확실히 확인하시고 제대로 씹시다. 학우들은 확실한 신문을 바랍니다. -행아가

-총학 종교실장

△미영아 열심히 해라. -행아가

그리고...

△미시축구부 동계합숙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센타

△경상97아그들이 다른학교에 가셔도 우리서로 연락하면서 지내자. △영선 유지야 내가 너네를 끔찍히 사랑하는거 알지. 알면 꺼리. -H.J

△동국언론의 중심이 흔들리는 모습. 아쉬움이 많이 납니다. -불교문화대 학생회장 △국어국문학부 1학년 김환경 나중에 꼭 얼굴 한번 보자꾸나. △재훈아, 형 영화 보여주는거 잊지마라. -행아가

△어머이 김원인씨, 아버지 장례환서 해에도 몸 건강하십시오. -미온 오리새끼

△어머이 김원인씨, 아버지 장례환서 해에도 몸 건강하십시오. -미온 오리새끼

△어머이 김원인씨, 아버지 장례환서 해에도 몸 건강하십시오. -미온 오리새끼

기획시리즈 - 사상의학

- 1. 태양인 · 태음인
- 2. 소양인 · 소음인

체질의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사상의학을 본지는 기획으로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주

1백여년전 이제마선생이 발견한 '사상의학'이란

인간중심의학 - 태양 · 소양 · 태음 · 소음 체질 구분통해 치료

제도 · 성리학 폐단 고쳐 올바른 유학정신 실천코자 한데서 발생

삼국지에서 고래수염에 곱같은 체격, 불같은 다혈적인 성격.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는 성격이어서 여성다움이 전혀 없는 모습을 가진 인물. 바로 '연인 장비'이다.

위와 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은 대부분 태양인이라고 한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도 태양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장비와 박정희 대통령은 체격 면에서 상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다른 체질을 하나로 보는 사상의학은 외모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와 심성과 그리고 병증을 복합적으로 취합해 체질을 판정내리는 것이다.

이런 사상체질을 발견하고 의학으로 체계화한 인물은 지금부터 약 1백년전 이제마 선생이다. 1백년전인 조선후기에는 식량문제가 심각해서 가장 원초적인 식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사회이기에 기존 제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대였다. 부패한 정치와 전염병이 심하여 백성들이 어려웠던 시기였다. 이제마 선생은 의학자이지만 유학자이기도 했다. 기존의 성리학의 폐단을

인식하고 새로운 사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결과 유학을 연구하다 사람마다 심성의 장단점이 있어 심신을 수련하는 방법이 달라야함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유학의 정신을 실천하려는 것이 의학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마 선생이 창시한 사상의학은 당시의 시대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만들어진 인간 중심의

철학이자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시대 사대주의 관점에서 수동적인 중국의학의 쫓아 외술을 펼쳤지만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의 사상을 인체에 적용한 사상의학은 종래의 음양오행의 철리적 공론을 배척하고 임상학적인 방법에 따라 환자의 체질을 중심으로 치료방법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근래에 들어서 손쉽게 자신의 체질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체질을 판단하면 그 체질에 맞게 생활하고 음식을 섭취하면 건강하게 무병장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질 판단방법은 오리테스트와 완력테스트이다. 우선 오리테스트는 왼손에

음식을 올려놓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통해 동그랗게(OK사인 모양) 하고 똑같은 손모양을 해서 다른사람이 그 사이를 벌리려 했을 때 벌어지면 맞지 않는 음식, 벌어지지 않으면 맞는 음식이라고 판단한다. 체질구분에 있어 오이를 쥐고 오리가 약해지면 소음인이고, 당근을 쥐고 오리가 강해지면 태음인, 감자를 쥐고 오리가 약해지면 소양인, 무를 쥐고 오리가 약해지면 태양인으로 판정한다. 완력테스트도 같은 원리로서 한쪽팔에 음식을 올려놓고, 다른 쪽 팔힘의 강도를 측정해 보는 것이다. 강도가 커지면 맞는 음식, 강도가 약해지면 맞지않는 음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사상의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4가지의 체질을 다룸에 있어 외모와 심성 그리고 병증이 자신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해서 그 체질이 아닐 수 있으며, 아직도 정확한 체질구분이 어렵게 현실이지만 분명 사상의학은 우리의 건강에 있어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박양우 기자 dg97430311@mail.dongguk.ac.kr

태양인 - 폐실간허(肺實肝虛) 체질

지도자 · 독재자 유형



윤종화 (한의과 대학 한의학과 교수)

태양인은 폐실간허(肺實肝虛)한 체질로 태음인과는 반대로 폐기능은 왕성하지만, 간기능은 약한 편이다. 폐의 발산기능은 강하고, 간의 흡입기능은 약하여, 폐대

못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모두 강한 폐기능과 약한 간기능으로 기운이 상승만 하고, 아래로 잘 내려가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기(下氣)의 특징인 소변을 잘 보이면 건강하다.

적합한 음식으로는 맵고, 열이 많은 음식보다는 지방질이 적고 담백한 맛의 음식이 적합하며, 대체로 생생(生鮮)한 식품이 좋다. 곡물로는 모밀로 만든 국수나 냉면이 좋으며, 해물로는 새우, 굴, 전복, 소라, 게, 해삼, 붕어등이 좋고, 과일로는 기운을 내리고 하지를 강하게 하는 모과, 앵두, 포도, 머루, 다래, 감 등이 좋으며, 음료로는 역시 모과차, 솔잎차등이 상기되는 기운을 편안히 가라앉혀 준다. 열을 발생시키고, 상기시키는 술은 좋지 않다. 적절한 운동으로는 하지의 기운을 키우고, 마음을 수양하는 태극권, 명상등이 좋다. 그러나, 하지의 힘을 너무 많이 소모하는 등산, 조깅등은 잘 조절해야 하는 운동이다.

기질적으로 사회관계에 능하여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선택의 기로에서 판단력이 빠르고, 어떤 일에 부닥쳤을 때,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정신으로 나아가고 물러서려하지 않으며, 용맹스럽고, 적극적인 남성적 성격이다. 말하자면 과단성있는 지도자나, 독재자형이다. 또, 대체로 머리가 명석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영웅심이 있다. 동역수세보원을 지은 이제마선생도 자신이 태양인이라고 하였다. 이런 체질은 방종지심(放縱之心)이 있어, 제마음대로이며 독선적인 면이 있다. 또, 느긋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서



둘러 일을 망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여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가지며, 매사에 한발짝 물러나서 일을 처리하고, 분노를 삭인다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다.

이런 체질의 사람은 판단력이 요구되는 일이나, 개혁신업에 용이하며, 머리가 명석하고 창의력이 풍부하여, 발명가, 과학자, 학자등이 적합하며, 성대가 발달하여 음악가나, 작곡가 등도 좋은 직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체가 약하므로 오랫동안 서서 일해야 하는 백화점 판매원이나, 많이 걸어야 하는 여행안내원등은 좋지 않은 직업이다.

이상으로 태양인에 대한 간단한 특징을 기술하며, 언급하고 싶은 것은 체질마다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무슨 체질이 좋고, 무슨 체질은 나쁘다는 것은 없다. 가장 현명한 생각은 각자의 체질 및 성격을 잘 파악하여 장점은 잘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자신을 잘 개발하는 것이라 하겠다.

태음인은 간대폐소(肝大肺小)한 체질로 선천적으로 간기능은 왕성하지만, 폐기능은 약한 편이다. 이때, 폐, 간의 한의학적 장부 개념으로 서양의학의 장부 개념과는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다. 폐는 호(내림)를 주관하고, 간의 흡(들어옴)을 주관하여 간폐(肝肺)는 호흡기액(氣液)의 문호라 하였으니, 태음인에 있어 간대폐소의 의미는 들어쉬는 흡입력은 강하고, 내어쉬는 발산력은 약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적절할 지는 모르겠지만, 늘이나 비닐 하우스와 같아서 물이나 영양소가 잘 모이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체질이다.

체형상, 폐부위는 약해서 상부 목덜미가 대체로 짧고, 간부위에 해당하는 허리가 발달되어 배 나온 사람이 많다. 복부형은 배꼽주위로 살이 많고, 명치부 같이빠가 둔각을 이루며 만나고, 얼굴은 둥근편이며, 배꼽부근에 배주름이 있거나, 배에 주름이 없는 특징이 있다. 비습한 체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체격이 크고, 근육과 골

태음인 - 간대폐소(肝大肺小) 체질

사장 · 장군 유형

격도 대체로 발달되어 있으며, 손발도 크고 체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위쪽이 약하므로 가슴이 뛰고 울렁거리거나, 답답해지는 증세가 있을 수 있으며, 소장이 간의 영향을 받아 울체되어 변비가 잘 생기고, 폐가 약하므로 피부의 상태도 좋지 않다. 또, 피부의 땀구멍이 성근 편이라 항상 땀기가 있고, 땀도 많이 흘리고 대변도 시원하게 보아야 건강한 상태이다.

잘 걸리는 질환은 호흡계가 약하여 폐렴, 폐결핵, 기관지염, 천식등이 잘 걸리고, 순환계가 약하여 심장병, 고혈압이 잘 걸리며, 피부가 약하고 기육(피부와 근육)에 열이 많이 알레르기, 두드러기, 습진등이 잘 걸리며, 그의 당뇨, 치질, 변비, 노이로제 등도 잘 걸린다.

태음인에게 적합한 고기로는 담담한 맛의 쇠고기(지방분 제외)가 좋고, 담백한 오징어, 잉어등의 생선이 좋으며, 과일로는 시원한 맛의 배, 진액을 많이 보충시키는 밤, 호두, 은행 등이 좋다. 야채로는 특히, 무가 잘 채우고 기가 울체되는 사람에게 좋으며, 도라지, 더덕은 목이 아프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좋다. 마는 태음인중에 위장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좋으며, 이외에 연근, 호박, 더덕, 송이버섯 등도 좋다. 곡물로는 위장을 편하게 하고, 습사를 제거하는 율무가 좋으며, 콩 및 콩으로 만든 콩나물, 두부, 비지등도 좋다. 흔히 마실 수 있는 음료로는 숙취와 열을 내려주는 찻차 혹은 율무차가 좋다. 그러나 상기의 것은 음식이므로 무조건 가리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함 것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골고루 먹으면서, 위의 것들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이 체질에 적합한 운동은 땀을 많이 흘리게 하는 씨름이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시킬 수 있는 수영등이 좋다.

기질적으로 태음인은 느긋하고 등직하며, 보수적이다. 대체로 한박자 느린 성격이라고 생각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은 모두 급하게 일을 서둘러 끝내더라도 자신은 자기의 일을 차근 차근 다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가지 일에 몰두하여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 등직한 사장이나 곳곳한 장군같은 타입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말 수가 적은 편이며, 변화를 싫어하며, 가성이나, 자기 고유의 업무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며, 둔하고 고집세고, 게으르며 의심이 많은 편이 있다. 겁심이 많아 보기와는 다르게 속으로 겁을 많이 먹는 다. 성격상 운동을 싫어하고 오락중에는 도박, 카드놀이 등 끈기를 요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기질을 타고 났으므로 태음인의 장점은 느긋하고, 끈기있는 면은 잘 살려나가고, 보수적이고 게으른 성격은 잘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체질에 있어 적합한 직업은 성격상 우직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지휘능력이 좋으므로 큰 사업가, 정치가, 군대지휘관이 좋다. 실제 큰 정치가나 사업가 중에서는 이런 체질의 사람이 많다. 또, 한가지 일에만 몰두해야 하는 탐험가, 연구가 등도 합당하다. 부적합한 직업으로는 변화가 심하고 재치가 요구되는 패션계, 유행사업계는 좋지 않으며, 성대를 많이 사용하는 음악가나 아나운서도 좋지 않다.

연구실 달하나 천강에

그간 십 수년동안 교수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교내의 여러 대학 교수님들의 방을 들르게 된다. 연구실이 주는 느낌은 그 방의 주인만큼이나 구구각색이다. 오후 햇살이 따사로운 잘 정리된 연구실에서는 차 한잔을 굳이 사양치 않으면서 주인의 학문적 운치를 느껴본다. 산더미 같은 자료가 나뉘는 연구실에서 피곤한 얼굴을 들어 방문객을 맞이하는 방에서는 나도 덩달아 힘이 솟는다. 자신의 저서를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 수 십병의 술병을 쌓아 놓은 어느 일본인 교수의 연구실은 또 작은 과격이었다. 그 모습에 용기를 얻어 나도 연구실에 술을 한병 놓아 두었다. 입대 또는 출국인사차 들르는 학생에 한하여 고별주로 꼭 한 잔씩만 주는 데 물론 없다. 그런데 내가 다른 분의 연구실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우리 캠퍼스 부근 어느 대학의 한 교수님을 방문하였을 때이다. 나는 그때 우리 나라 대학의 지적재산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전국 3백16개 대학의 특허 출원건수가 일개 하도급업체 만도 못한 사실에 맥이 마져 있던 때였다. 그러나 그 분의 연구실을 방문해보니 신이 났다. 과학자인 그분의 연구실은 2백여원이 출자된 어떤 기업의 사장실을 겸하고 있는데 교수와 대표이사직이 나란히 쓰여진 명패도 쳐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 새로운 것은 그 분이 갖고 있는 대학관이였다. 대학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역설하며 돈독이 오던 교수가 많아 대학이 산다는 그의 말은 힘있게 들렸다. 그 돈독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딱딱처럼 대가없는 것이 아니다.

또는 이 나라 어느 집단의 제2차 문화현상인 전별금 따위와도 다르다. 그 돈독은 교수 연구실의 불을 밤새 밝히면 대학재정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명의 진보를 실현한다. 최근 나라경제가 어려워진 후 우리 사회는 새삼스럽게 지식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지식산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격렬한 국제경쟁의 최후인 대학의 연구실은 어떤 뉘를 하고 있는가? 이와같은 질문에 답하여 요즘 우리 캠퍼스에서도 젊은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상아탑에서 시장까지'의 구호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참으로 신명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전공에 따라 또 교수님의 개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의 연구실 순례는 훨씬 흥미로울 것 같다.



김선정 법정대 법학과 교수

한자병용, 무엇이 문제인가

한자 병용은 “나라 망치는 일”

민족적 자존심 · 국가관 소홀히 한 처사

대한민국사람이면 한글을

지난 2월 9일 문화관광부의 한자병용정책추진 발표 이후 ‘한글한화’를 비롯 여러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본기획에서는 한자병용 반대의 이유를 들어보고 다음호(1266호 3월8일자)에 한자병용 찬성의 이유를 들어보도록 한다.

지난 2월 9일, 문화관광부에서 기습 발표한 한자 병용 정책은 한 마디로 졸속 정책이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이유는 문화관광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정책의 필요성은 한자 문화권(중국, 일본 등 한자 사용국)과의 국제 교류의 일환으로 관광객 유치에 의해 도로 표지판에 한자를 병기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표지판 문제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며, 문화관광부와 전혀 관계없는 포장용으로서 그 속에는 교육부 소관인 초등학교 한자 교육이 들어 있다. 더욱이 한글 전용법의 기본 틀을 절대 손대지 않는다면 실제 한글 전용법의 모체인 사무 규정의 개정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 또한 행정자치부가 할 일이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내놓을 정책이 아닌 것이다.

한자 쓰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하나 같이, 한자는 ‘우리 국어, 우리 글’이라고 한다. 과거 우리가 글을 몰라 고통받고 말과 글을 빼앗겨 수난을 겪었던 건이 이 일들을 까맣게 잊은 채 굴욕 외교에 능숙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우리는 모를 일이다.

문화관광부 소관 아니다

우선 신남군 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 관광객(한자권)을 위해 도로 표지판에 한자 병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 관계자 발표에 따르면, 도로 표지판이 약 10만개가 있는데 이것을 한자까지 병기하여 바꾸는데 모두 1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든다고 한다. 또한 한자 표기는 획수가 많아 도로 통행시 운전자가 관독을 하는 데 초를 다루는데 깜박할 사이에 대형 사고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볼듯 뻔하다는 게 택시 기사들의 공통된 의견을 신 장관은 알아야 한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한답시고 한자 병용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한자권 나라마다 그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라 불과하다. 진정한 관광객 유치에 목적이 있다면, 도로 표지판보다는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정책 발표의 알맹이인 초등학교 한자 교육 실시를 위한 발상이 큰 문제이다.

우선 한자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묻고 싶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글자인 한글로만 잘 알고 잘 쓰면 되는 것이 한자로 이를 쓰고 신문을 읽고 못 읽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한자 세대들의 교육 바탕이 한자이므로 한자라는 글자 자체의 우수성보다는 습관에 젖은 한자의 잣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자를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한자의 본국인 중국 초등학교 학생들이 종도 하차하는 학생이 많아 세계에서 문맹률이 1위이겠는가. 반대로 우리 한글이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하여 문맹률이 제일 낮은 게 아니라 문맹자가 없다고 한다. 어떤 이는 한자를 몰라 문화와 전통 계승이 단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억지 주장이다. “조선왕조실록”이 남북한에서 이미 한글로 번역되어 어린이들도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16세기 영어 문장을 현대 영어 문장으로 번역되어 세 계인이 즐겨 읽고 있지 않은가. 이 모든 것들은 역사가나 번역가 등 전문가들이 할 몫이지 전 국민이 매달려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자를 알고 모르는 것은 마치 영어나 불어를 더 알아 좋은 것일 뿐이다.



사진=한겨레21

정보화시대 역행하는 정책

한자 병용의 반대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문제라면 정보화 시대에 사무 능력화와 정보 시스템 개발에 저해 요소가 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이다. 세계화·정보화는 무엇보다 초를 다루는 즉 1/100초를 1/1000초로 앞당기는 경쟁 기술이 국제 경쟁에서 이기는 길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중국은 후회하고 그나마 간체자로 간신히 꾸러가고 있다. 아무리 약삭빠른 일본도 한자 때문에 컴퓨터 산업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다만 우리 나라만이 우월하게 훌륭하고 빠른 속도의 처리 능력을 갖춰 세계 만능 코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자 병용 정책 발표는 우리 나라의 민족적 자존심과 국가관을 소홀히 한 작태이다. 이는 마치 21세기를 50년 뒤로 끌어내리려는 일본의 술책이 아닌가 의구심이 깊어만 간다. 어쨌든 문화부의 ‘한자 병용 정책’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또 우리 젊은 한글 세대는 막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자 병용은 나라 망치는 일이 틀림없다. 용기 있는 젊은 한글 세대들의 국제 경쟁에 주역이 될 인재 양성에 재뿌리는 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 광 호
한자병용 반대투쟁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99 새터평가

‘한정된’ 대학문화 보여주는데 그쳐



새내기들은 새터에서 처음으로 대학문화를 접하게 된다.

99학년도 서울캠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가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총복 소식지에서 개

최됐다. 1진과 2진으로 나뉘어 2박3일 동안 진행된 새터는 중앙 공연과 청년강좌를 통해 교양을 쌓고

책소개

도학연구



본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민섭 공학박사가 ‘도학연구’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다.

건축공부에 있어서 구도, 시공 등의 기술분야나 계획, 설계 등 디자인 분야를 막론하고 건축학의 기초를 다져주는 책이다.

지문당, 정가 1만2천원

현대 일본사회론



본교 사회학 강사이고 일본 동경대학교 외국인 연구원인 구원인 구원씨가 일본 사회를 고찰해 놓은 책이다.

일본 사회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것을 작가 자신의 발전, 승화시키려는 작가의 포부가 담겨있다.

지문당, 정가 9천원

일본 대중문화 베끼기



우리 대중문화 산업이 얼마나 많이 일본의 대중문화를 베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다.

있을가를 파헤쳐 준다. 앞으로 우리 대중문화의 발전을 위해 일본 대중문화 베끼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니무와 숲, 정가 8천원

동국사상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의 올바른 구현을 위해 불교 대학에서 발행되는 불교 대학 학술지이다.

40년간 꾸준히 발간되어 29번째 학술지를 발간했다. 불교학을 공부하는 교수, 강사, 학생들의 참여로 불교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비매품(도서관에서 열람)

수습모집 공동광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곳에 오면

“세계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동대신문사(2260-3491/2, 0561·770-2057), 동국포스트(2260-3493), 교육방송국(2260-8503/4), 교지편집위원회(2260-3680)

매체비평

음반

조PD "Stardom"

"이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에 갱스터 랩 장르가 아닌 발라드계열의 노래가 열광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겠는가"



사이버공간에서 '본' 조PD의 음악은 음반 발매 1개월만에 약 15만장이 팔리는 등 선전하고 있다.

최근 가요계에 등장한 조PD(24)라는 한 신인가수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른 신인가수들과 달리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제도권 진입이라는 다소 특이한 데뷔경로 때문일 것이다. 조PD는 지난해 10월 나우 누리에 8곡의 자작곡을 MP3 음악파일로 올려 2만여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뒤 지난 1월 15일 앨범을 발매해 2월말 현재까지 약 15만장을 판매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로 가요계가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대단한 선전임에 분명하다. 게다가 곡작업부터 앨범 표지디자인까지 모두 자신이 만든 이번 데뷔 앨범의 제작비는 약 8백만원 정도(홍보비 제외). 국내 유명가수들의 음반제작비에 비해 약 10분의 1 가격으로 제작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봐도 대단히 짭짤한(?) 장사를 하고 있

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사이버 갱스터 랩퍼'라 불리는 조PD의 돌풍이 가요계의 기존 음반 발매경로를 바꿀 만큼 큰 위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먼저 조PD의 음악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들 수 있다. 육설과 비속어를 거침없이 내뱉는 그의 노래는 전형적인 갱스터 랩, 그 자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자. 이명성이 보장되고 진보적인 색채가 짙으며 또 어떠한 심의도 받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 갱스터 랩 장르가 아닌 전형적인 발라드계열의 노래를 올릴 때 과연 이처럼 열광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갱스터 랩이란 소수 마니아들을 위한 장르에 불과할 뿐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다. 두번째 언더그라운드 클럽 문화가 활성화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풍토에서는 '차잔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조PD는 음반 발매후 한번도 공개석상에서 실력을 검증받지 않은 상태. 만약 우리나라에 클럽 문화가 자리잡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기가 '거품'인지 '사실'인지 냉정하게 가려졌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맛 까다로운 통신 마니아들의 식성을 조PD의 음악이 언제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다. PC통신의 주 이용 연령대가 중고생인 만큼 신곡에 대한 반응이 무척 빠른 반면에 대단히 변덕스럽다. 어제의 인기가수가 오늘의 퇴물 가수로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이 사실임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우려가 든다.

팝컬러리스트 임진모씨는 "랩의 구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랩퍼들도 따라 오지 못한다"고 극찬하나 이와 반대로 이 무명씨는 "협잡정신 즉 저항정신에 투철한 노랫말의 신선함은 인정하나 만약 사이버 공간이 아니었다면 이같은 노랫말이 가능했는가"라고 반문한다. 조PD의 등장이 가요계에 새 바람을 몰고 온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데뷔와 기존의 제도권을 통한 데뷔가 완전 상호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아직도 시기상조다. 지금은 그의 음악을 차분하게 감상하고 냉정히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성준 스포츠서울 문화부

학내 문화공간을 찾아서



새 학기가 시작됐다. 빠듯한 강의일정, 아르바이트, 학원 수강 등 바쁜 생활 속에서 더욱 간절해지는 것은 휴식이다. 휴식을 통해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더불어 개인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휴식을 좀더 깊지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 공간을 찾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휴식공간을, 문화공간을 학내에서 찾아보고 가꿔보자는 것이 본 기획의 의도이다.

공간활용 · 인식전환으로 문화 생성

대학교 마로니에 공원, 문예회관 앞 공터에서 춤을 추는 청소년들을 본 적 있는가. 한 때의 무리들이 요새 가장 유행하는 춤을 추고 있다면, 그들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꾸적꾸적 모여든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공간에서 춤추기를 강요받은 것도, 또한 구경꾼들을 불러모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야말로 '멍석'만 깔려 있으면 춤추는 사람이 보인 사람이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본교로 눈을 돌려보면 우선 본교는 '멍석'이 부족하다. 물론 서울캠의 경우 워낙 절대공간이 협소해 강의·연구공간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들의 휴식공간, 문화공간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사치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간마련에 있어서 선·후는 존재할 수 있겠으나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문화공간의 필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절대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무엇보다 문화공간의 확충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 부족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

겠다. 운동장 하나 변변히 없는 경시대 서울캠퍼스는 옥상을 농구장·축구장 등이 있는 체육공간, 휴식공간, 공연공간 조성해 활용하고 있다. 본교도 해화관 옥상에 '다락방' 매점을 설치해 어느 정도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문화공간으로서 학생들의 구미에 맞기에는 역부족이다. 공간의 활용 못지 않게 또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인식전환이다. 지난해 여학생부처에서 실시한 '끼잡터'는 참여부족으로 인해 상설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지만 관람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여학생부처 전미영 상담원은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소극적 태도가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주저하게 만든다고 한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는 동약을 더욱 푸르게 만들 것이다. 문화공간 발굴 내지 활용은 학교주변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신촌, 돈암동, 해화동 등 이른바 '좁음의 거리'는 주변에 위치한 대학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몫을 한다. 우리 입맛에 맞는 문화를 생성해내야 할 때이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운동장 하나 변변히 없는 K대 서울캠퍼스는 옥상을 농구장·축구장 등이 있는 체육공간, 휴식공간, 공연공간 조성해 활용하고 있다. 우리 입맛에 맞는 문화 지형을 생성해내야 할 때이다.”

서울캠



불상앞 많은 학생들이 관람하기엔 작은 공간이지만 많은 정기공연이 열리고 있다. 손짓사랑하나 몽개구름들 각 동아리에서 심심치 않게 이용하고 대체제 기간에는 공연과 전시가 끊이지 않는 데 잔디밭까지 가득한 학생들의 관람모습을 볼 수 있다.



만해광장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 장소. 지금은 공연보다 농구장으로 애용되고 있어 운동을 하는 공간의 부족도 배제할 수 없다. 농구장과 그외의 체육공간으로의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운동장과 더불어 각광받고 있는 운동장이다.



끼잡터 여학생부처에서 기획한 행사로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행사로 몽개구름과 현여울의 공연이 4번 있었다. 이 행사는 동아리 위주라기보다는 끼를 가진 동약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도 역시 계산산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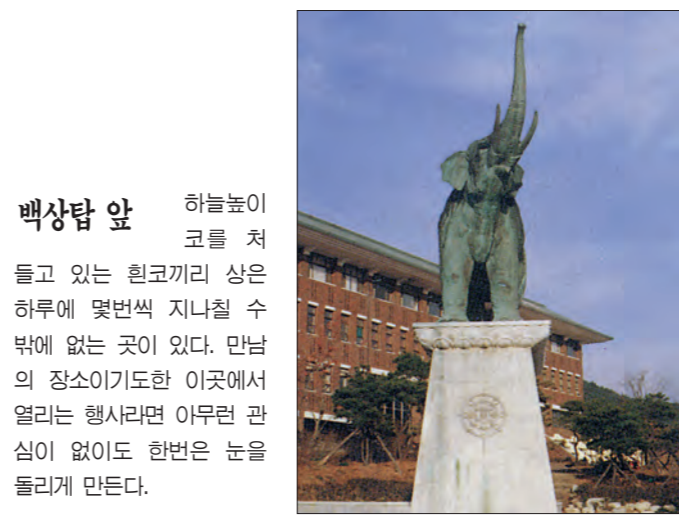


해화관 옥상 현재는 다락방이라는 식당을 찾는 학생들이 애용하는 곳. 함께 하늘과 맞닿은 트인 공간에서 학교 주변 경치를 한눈에 담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앞으로 다른 건물 옥상의 활성화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주캠



녹야원 5월의 대동제나 학교의 큰 행사나 공연이 있을때면 아침 일찍부터 오후 한나절까지 노래소리로 학교안은 야단이다. 때문에 바로 옆에 위치한 도서관이 술렁이기도 하지만 이곳 녹야원에서 열리는 특별한 행사라면 비가 내리는 어두컴컴한 밤중에도 공연을 구경하려는 학생들로 가득찬다.



중정 원호관 건물 속에 자리잡은 휴식과 문화의 공간 햇빛 쏟아지는 이곳에서 봄·가을이면 미술학부의 미술전, 문화동아리의 사회전이 주로 열린다.



통일광장 통일광장은 다른곳에 비해 조각물 전시, 단발별 행사 등 소규모의 행사나 공연이 많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미술학과 학생들이 다듬어 놓은 조각물 옆으로 늘어선 길다란 벤치, 따뜻한 퇴약법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덩굴나무, 건물 한켠에 마련된 농구대는 여유로움에 목미른 학생들의 걸음을 없애주는 이 문화공간을 온발골 학생들은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자유인식 랩은소식

학교 밖에서

두드락

두드리기 + ROCK & 樂을 조합한 말 <두드락>이 98년 8월에 첫선을 보인 후 새롭게 다시 무대에 오른다. 우리 일상속에 녹아있는 갖가지 형태의 리듬과 두드리기를 음악적으로 유머러스하게 표현했다. 우리장단과 가락을 현대화하여 신세대나 외국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것도 특징. 이번달 7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문의 548-4480



OFF-Theater "미아리 오름" 연극, 무용, 마임, 퍼포먼스, 음악, 영화 등의 다채로운 장르가 한꺼번에 선보이는 한국적인 OFF Theater이다. 내용과 형식이 자유분방할 뿐만 아니라, 행사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입회할 수 있으며 음식을 먹으며 관람할 수 있다. 기존의 공연 문화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마음껏 해보자는 것이 주요 컨셉. 이번 달 28일까지, 예술극장 활인, 문의 923-1090

물고기남자



창작극단을 모집하는 극단 연극세상의 1주년 기념작품이다. 남해 연안의 양식장을 배경으로 브로커에게 사기당한 두남자의 이야기로 희곡작가 이강백씨가 1년간 집필해 완성했다. 작가특유의 내면묘사가 섬세하게 나타나 있다. 5월 2일까지, 석좌극장에서 문의 744-2627

99년판 '칠수와 만수'

86년에 초연되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작품이다. 페인팅 칠수와 만수의 입을 빌려 감잡힌 세상을 풍자했다. 초연 당시인 80년대나 지금이나 하층민의 생활은 달라진 것이 없는 할벗음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번달 28일까지, 연우극장에서, 문의 744-7090

헤어지기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뽀뽀 말해줄래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알고 싶은게 많이 남았어." 안돼요. 대중이 할 아버지는 할발을 닮았대요. 이제 그만. 어머, 텔레토비 친구들이 다시 동산으로 뛰어가네요! "도망가자!" 어찌죠? 대중이 할 아버지는 이제 말을 안 해줄텐데. 김미경 편집장 pink@cakra.dongguk.ac.kr

메아리

텔레토비

▲뽀이뽀이뽀이, 텔레토비 시간이예요, 텔레토비 친구들 안녕? 텔레토비 친구들이 동산 위로 뛰어 올라가요. 바람개비가 무지개빛 가루를 뿌리자, 모두들 머리의 뿔을 흔들거리며 전파를 받아요. 앓, 보라돌이의 배가 반짝거리네요."와, 보라돌이 다. 이저 봐!" 텔레토비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해요. "안녕! 난 DJ할아버지야! 내가 취임한지 1주년이 되거든. 물어보고 싶은거 있으면 다 물어봐" ▲지난 21일 일요일, TV에 앉은 국민들은 장편 텔레토비 특집을 지켜봐야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이 출연한 '국민과의 TV대화'는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는 바로 텔레토비의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작년 1월 18일과 5월 10일에 있었던 두차례 대화와 같이 현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과거

에 대한 평가와 현재의 상황만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답변해나간 것이다. 특히 노동자 생존권의 대책마련없이 구조조정에 있어 정리해고와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로인해 결국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정위를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김대통령의 '국민과의 TV대화'는 집

권 1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공개평가를 받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번 '국민과의 TV대화'는 국민의 기대, 특히 노동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했다. 국민과의 대화가 예년에 비해 시청률이 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텔레토비 친구들! 이제 헤어질 시간이예요. "아이! 싫어!" 텔레토비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저으며 대중이 할아버지하고